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

羅錫疇

Na Seokju

1892 - 1926

Na Seokju, Undying Fir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나석주 의사 편지 특별 공개

— 의열단원으로서의 결심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1924.9.11.)

Letter from Na Seokju in Yantai (China) to Kim Gu in Shanghai (September 11, 1924)

— 폭탄 투척 의거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1925.7.28.)

Letter from Na Seokju in Beijing to Kim Gu in Shanghai (July 28, 1925)

— 이승춘에게 폭탄 투척

의거 동참을 권하는 편지 (1925.7.28.)

Letter from Na Seokju in Beijing to Yi Seungchun in Shanghai (July 28, 1925)

— 폭탄 투척 대상을 정해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1925.8.4.)

Letter from Na Seokju in Yantai (China) to Yi Seungchun in Shanghai (August 4, 1925)

— 귀국 배편을 구하기 어려움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1925.8.12.)

Letter from Na Seokju in Yantai (China) to Yi Seungchun in Shanghai (August 12, 1925)

— 의열투쟁의 필요성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1925.8.14./8.25.)

Letters from Na Seokju in Yantai (China) to Yi Seungchun in Shanghai (August 14 and 25,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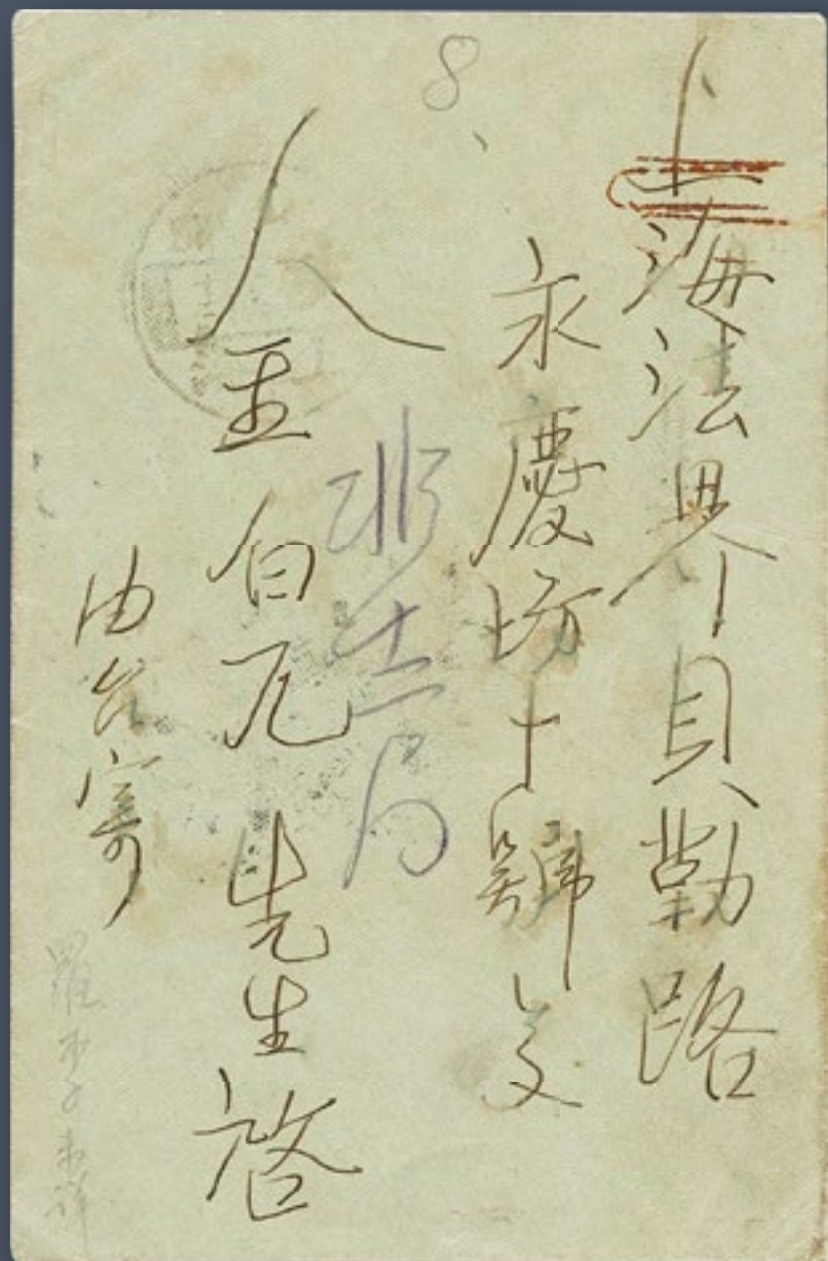
— 황해관에게 의거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 (1925.8.26.)

Letter from Na Seokju to Hwang Haegwan (August 26, 1925)

의열단원으로서의 결심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1924. 9. 11.)

국가등록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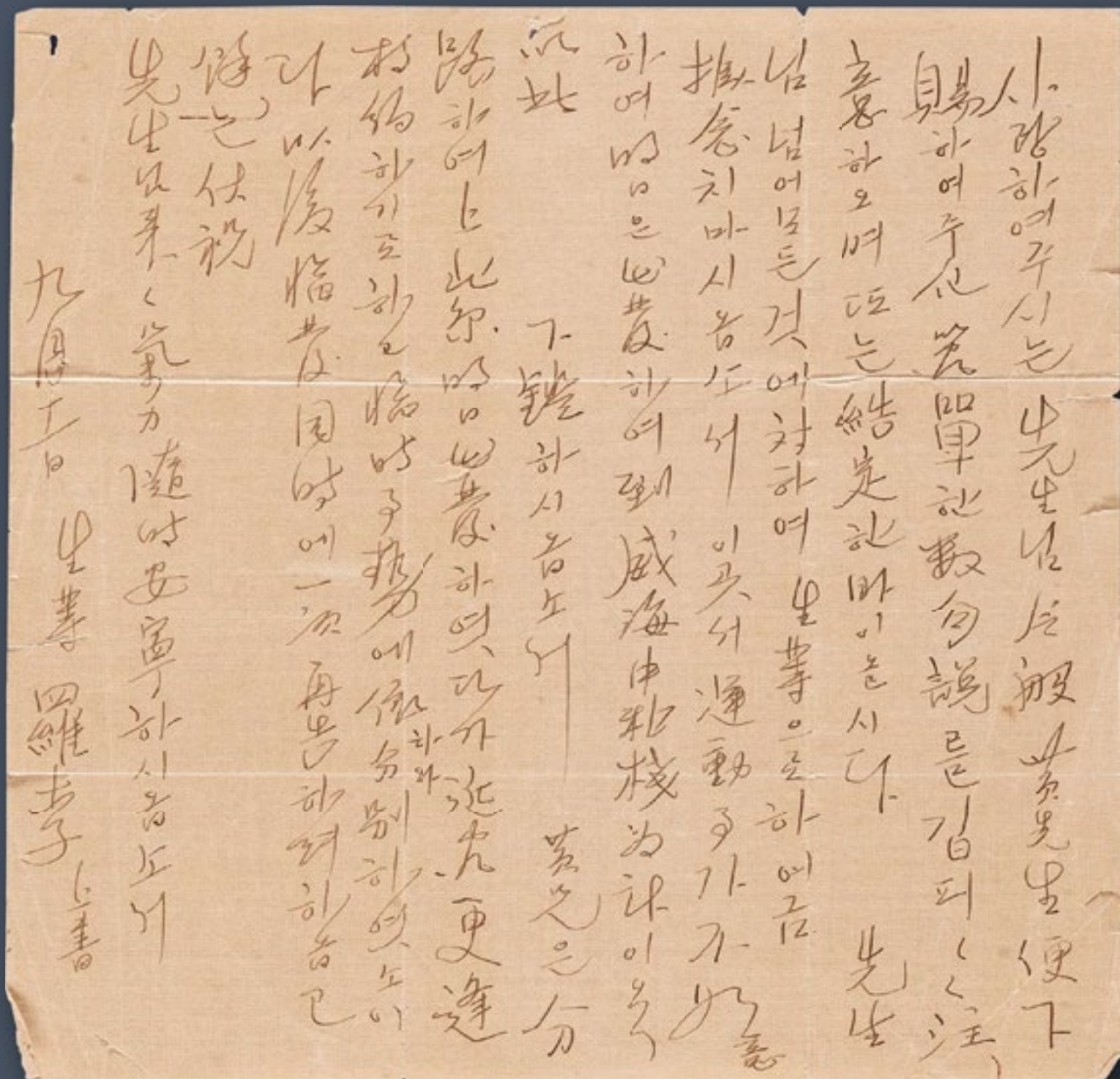
신수 6284-6



상하이^{上海} 프랑스조계 패룩로 영경방 10호^{*}
김백범 선생님께

옌타이^{烟台}에서 보냄

^{*} 영경방10호 : 1922년부터 약 5년 간 김구와 가족이 살았던 집주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이번 황 선생(황익수) 편에 보내 주신 간단한 몇 자의 말씀을 깊이깊이 마음에 새기며 결정한 바입니다.

선생님, 너무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로 인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활동이 뜻한 것과 같지 않아서 내일 출발하여 웨이하이^{威海}* 중화잔에 도착할 계획이오니, 이러한 사정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황 형은 따로 길을 나서 내일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했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때그때 일의 형편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이후 출발할 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하오며,

나머지 말들은 이만 줄입니다.

삼가 선생님의 건강이 오래오래 때에 따라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 9월 11일 나석주 · 이승춘*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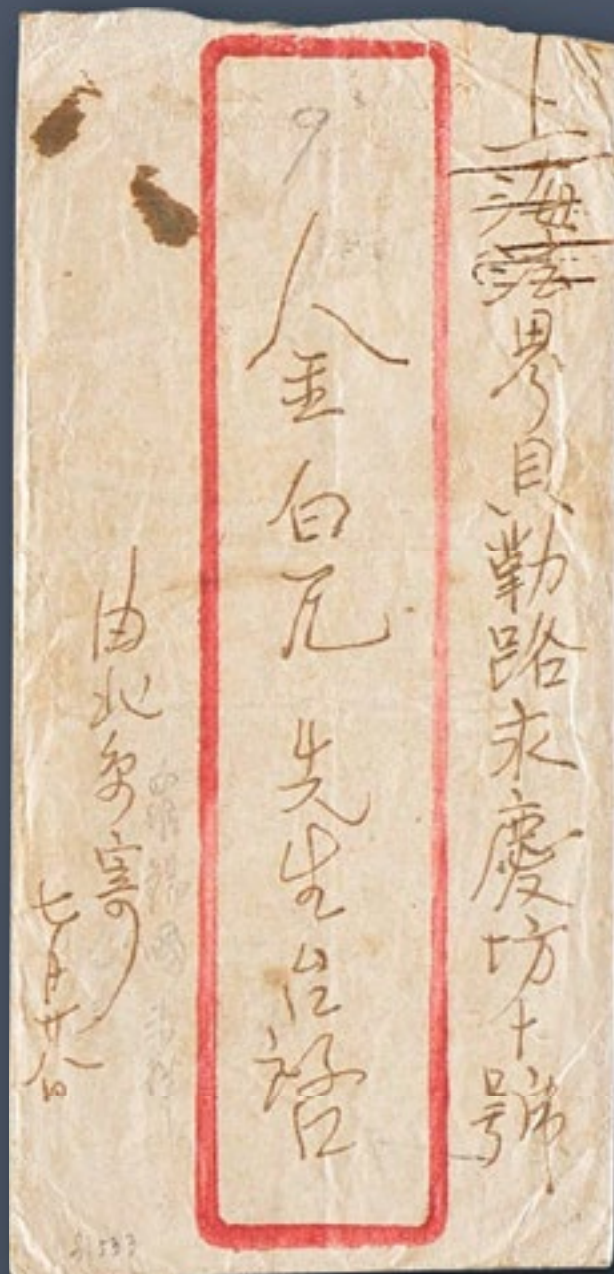
* 웨이하이 : 산둥성 동부의 항구도시. 청일전쟁(1895)으로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영국의 조계지(1898~1930)가 됨

* 이승춘 : 본명 이화익(李化翼)(1900~1978). 황해도 장연 출신. 나석주와 함께 의열단 가입

폭탄 투척 의거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1925. 7. 28.)

국가등록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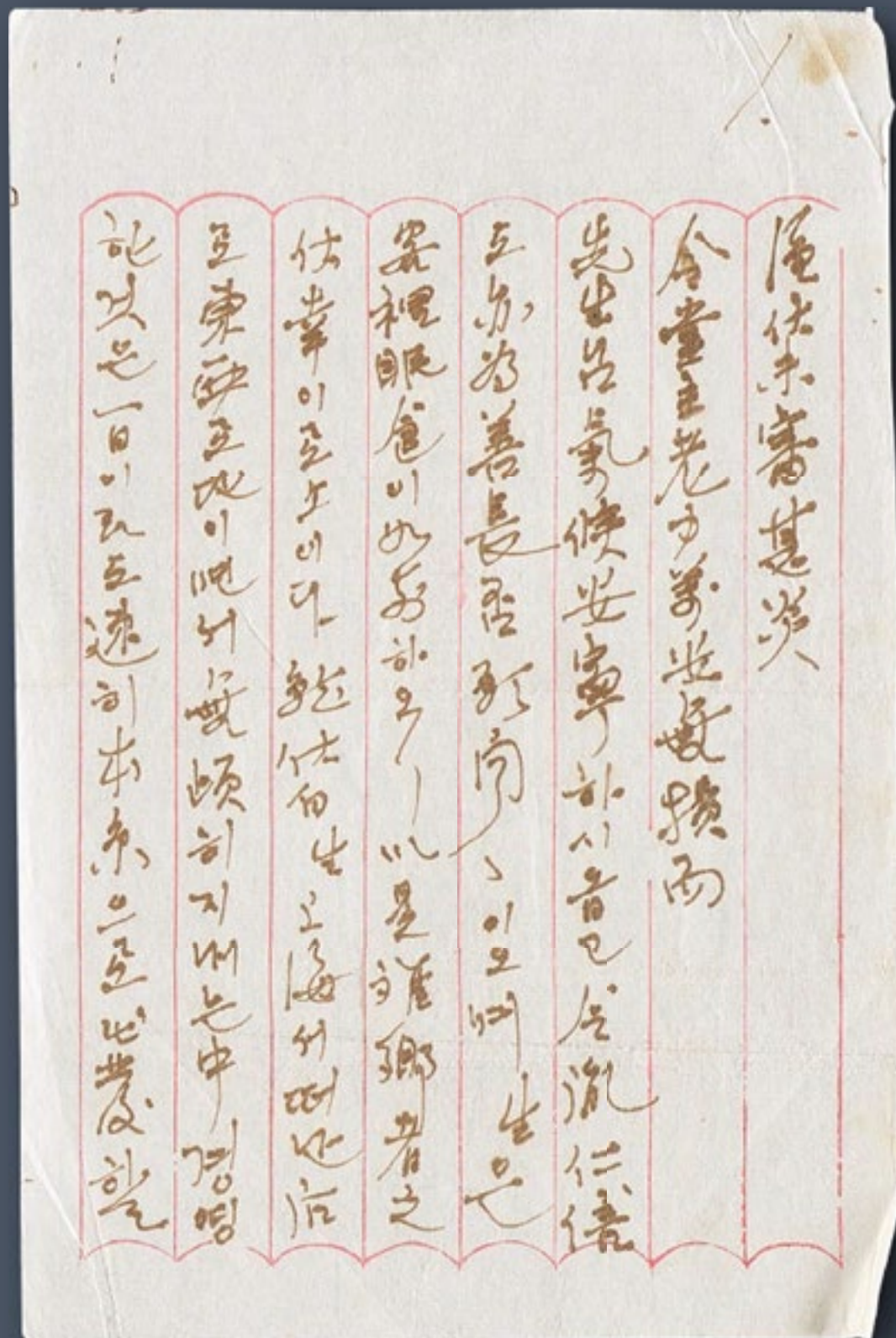
신수 62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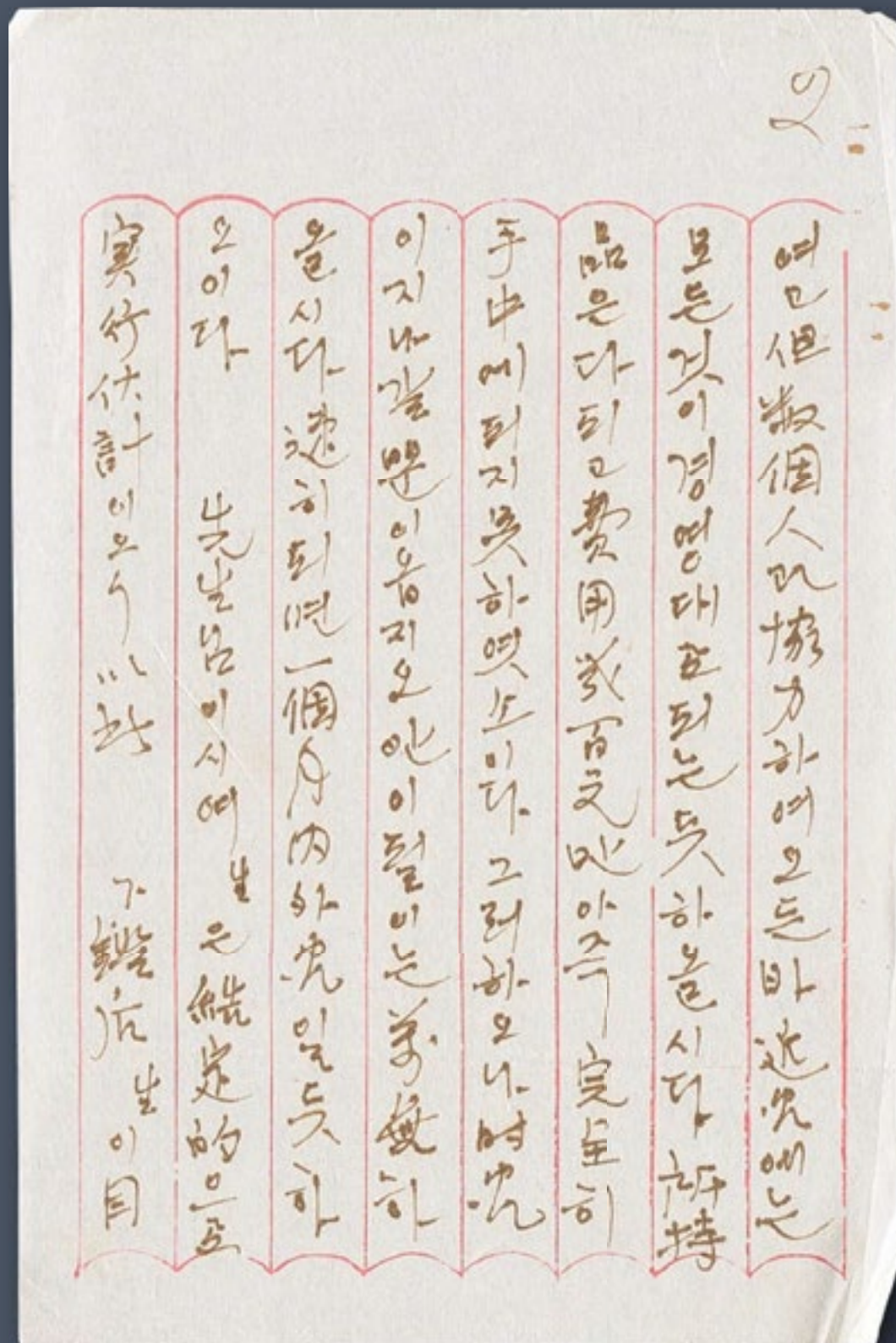
상하이^{上海} 프랑스조계 패륜로 영경방 10호*
백범 김구 선생님께

베이징^{北京}에서 보냄
7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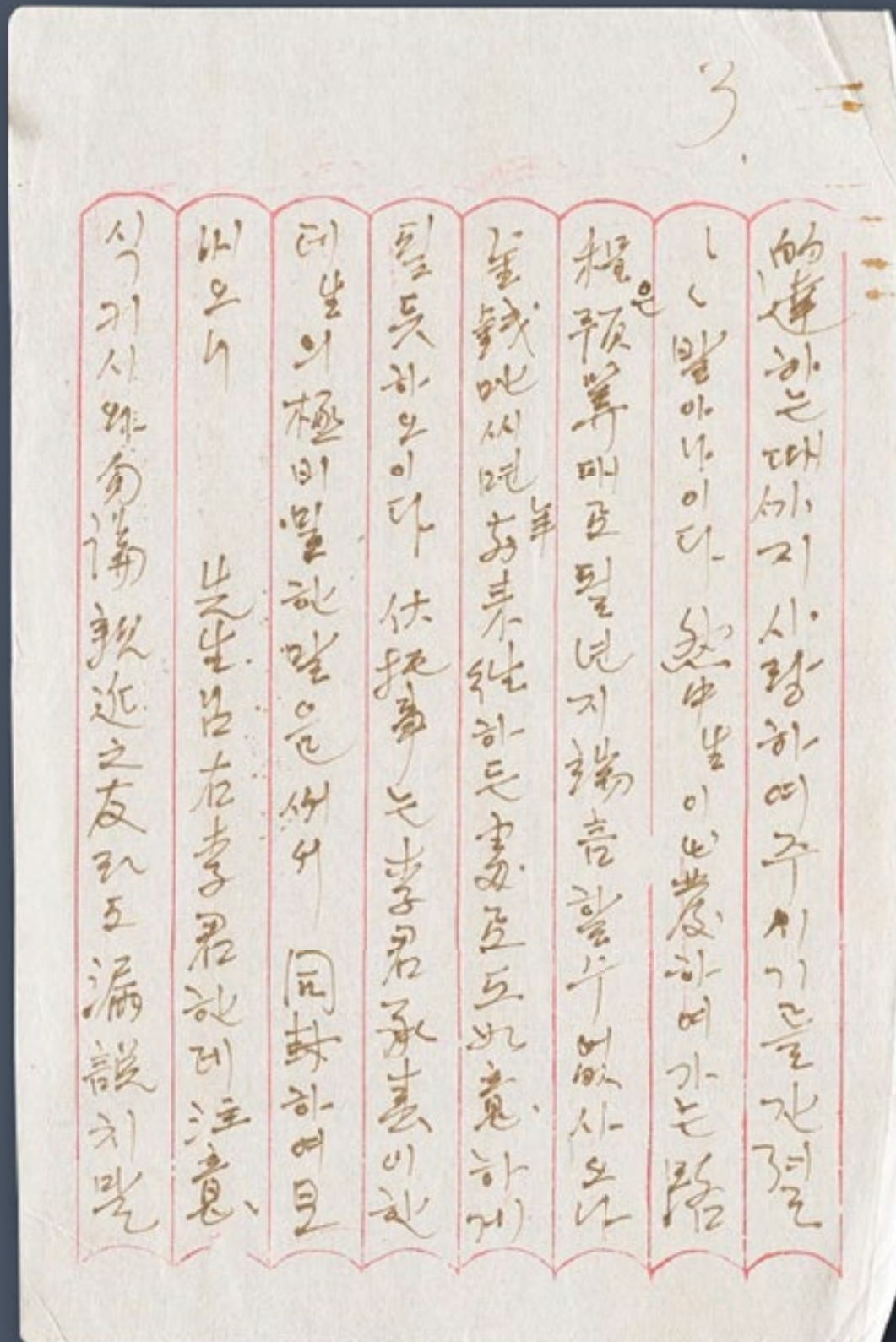
* 영경방10호 : 1922년부터 약 5년 간 김구와 가족이 살았던 집주소



삼가 찌는 듯한 더위에 선생님 어머니의 기력이 모두 편안하고
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편안하시고
두 아들 인^仁(1917~1945), 신^信(1922~2016)도 역시 잘 크고 있는지요?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저는 객지에 있는 동안 먹고 자는 것이 전과 같으니,
고향을 떠나온 사람으로서 꽤 다행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상하이^{上海}를 떠나온 뒤 동서로 다니면서
무탈하게 지내던 중에 계획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서울로 출발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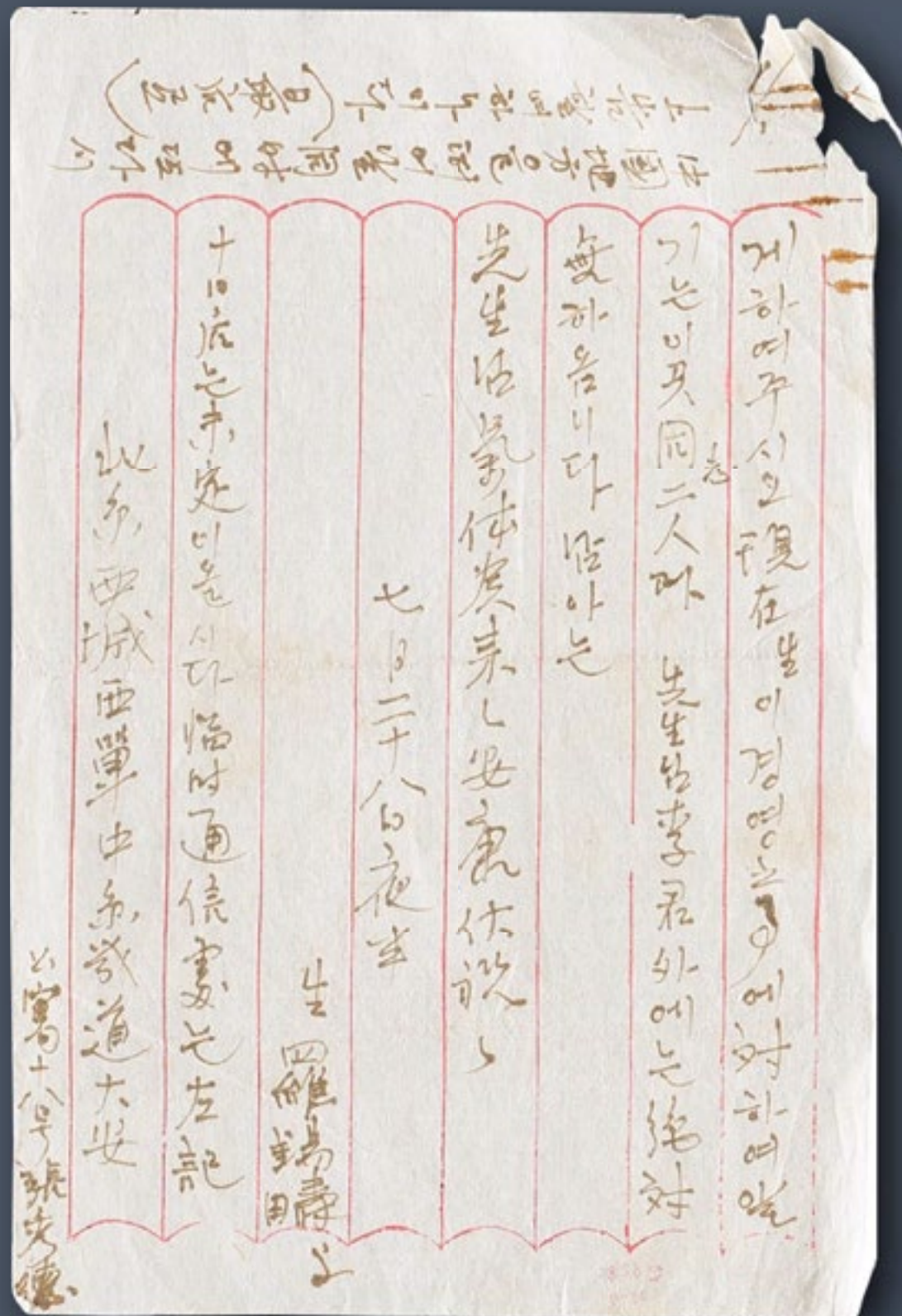


몇몇 사람과 협력하는 일이었는데,
 요즈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듯합니다.
 소지품(폭탄)은 준비되었는데,
 비용 몇백 원만 아직 완전히 수중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안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로 출발하는 것은) 빠르면 1개월 내외가 될 듯합니다.
 선생님, 저는 (국내 일제 기관 폭파를) 확실하게 실행할 계획이니,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제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제가 출발하여 가는 길이 예상대로 될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금전만 있으면 지난해 오가던 곳으로도 뜻한 바와 같이 될 듯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은 이승춘* 군에게
 저의 지극히 비밀스러운 말을 써서 동봉하여 보내오니,
 선생님께서는 이 군에게 주지시켜
 친한 친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춘 : 본명 이화익 李化翼(1900~1978). 황해도 장연 출신. 나석주와 함께 의열단 가입



현재 제가 계획한 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이곳의 동지 두 명과 선생님,
이 군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나머지 많은 말들은 이만 줄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내내 편안하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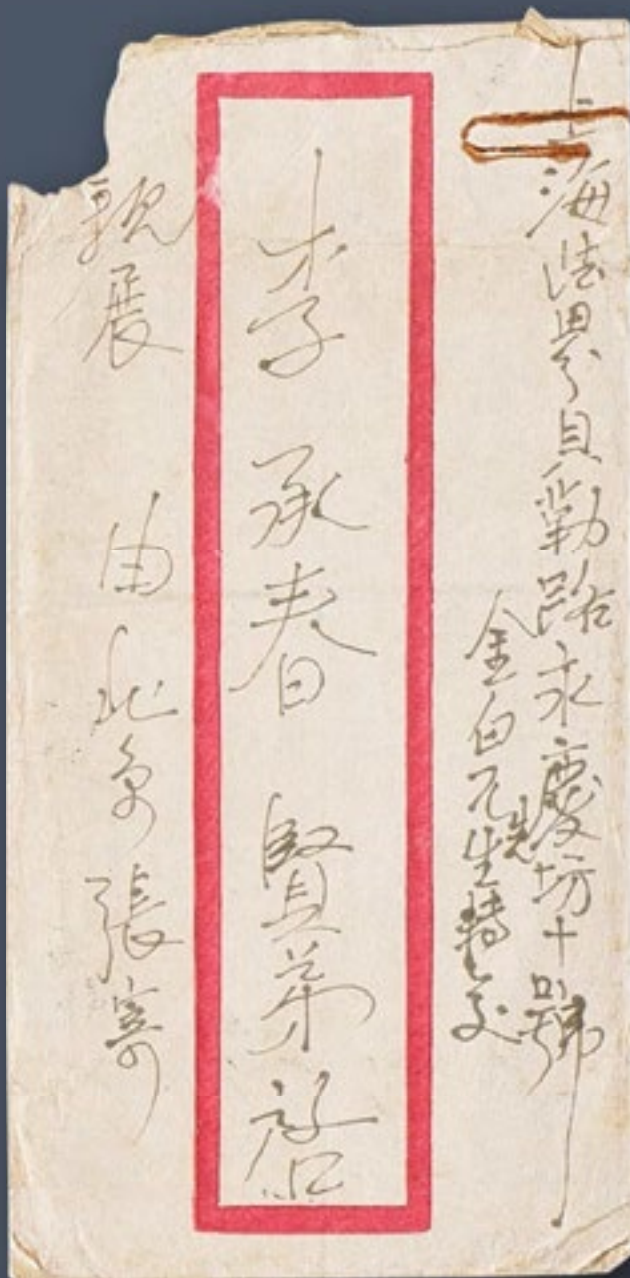
1925년 7월 28일 한밤중에 나석주 올림

(추신) 10일 후 (거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시통신처는 왼쪽과 같습니다.
‘베이징 서성 서단 중경 이도대안 공우 18호 장수덕’
중국을 떠날 때 다시 마지막으로 아뢰려고 합니다.

이승춘에게 폭탄 투척 의거 동참을 권하는 편지 (1925. 7. 28.)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수 628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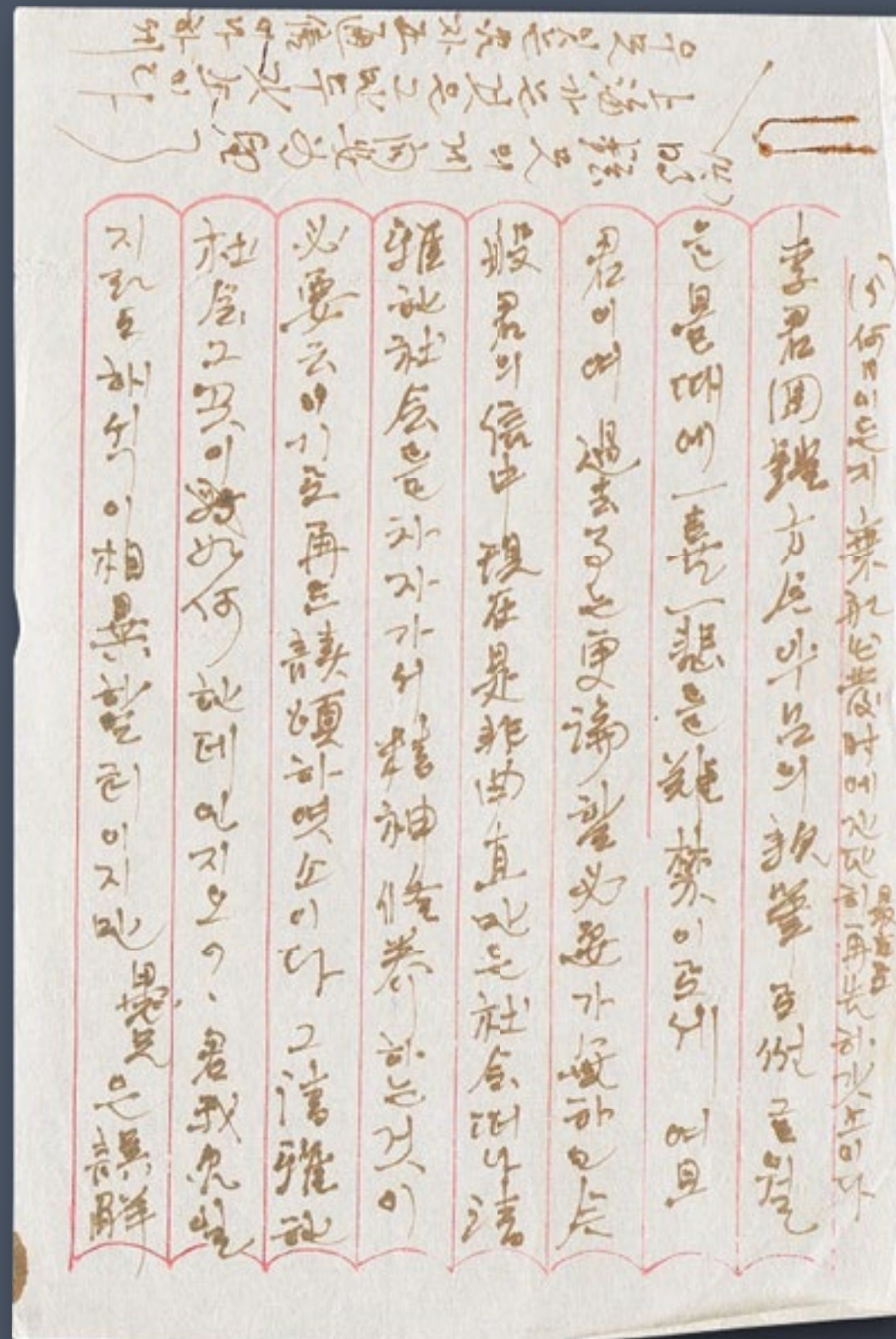


상하이^{上海} 프랑스조계 패륜로 영경방 10호^{*}
김백범 선생을 통하여
이승춘 현제^{賢弟}^{*}에게

베이징^{北京} 장수덕 집에서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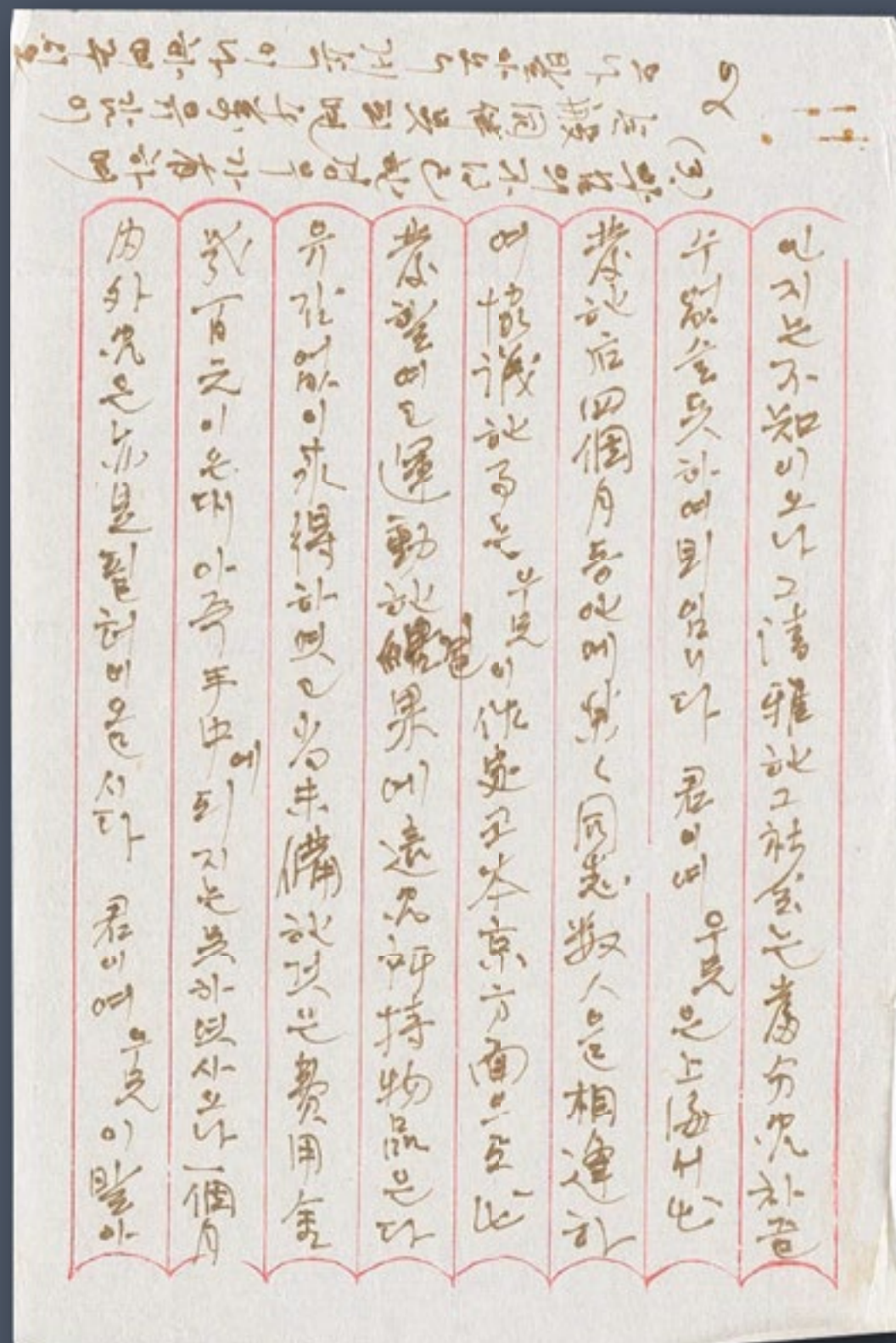
* 영경방10호 : 1922년부터 약 5년 간 김구와 가족이 살았던 집주소

* 현제 : '어질 현賢'을 써서 아우뻔 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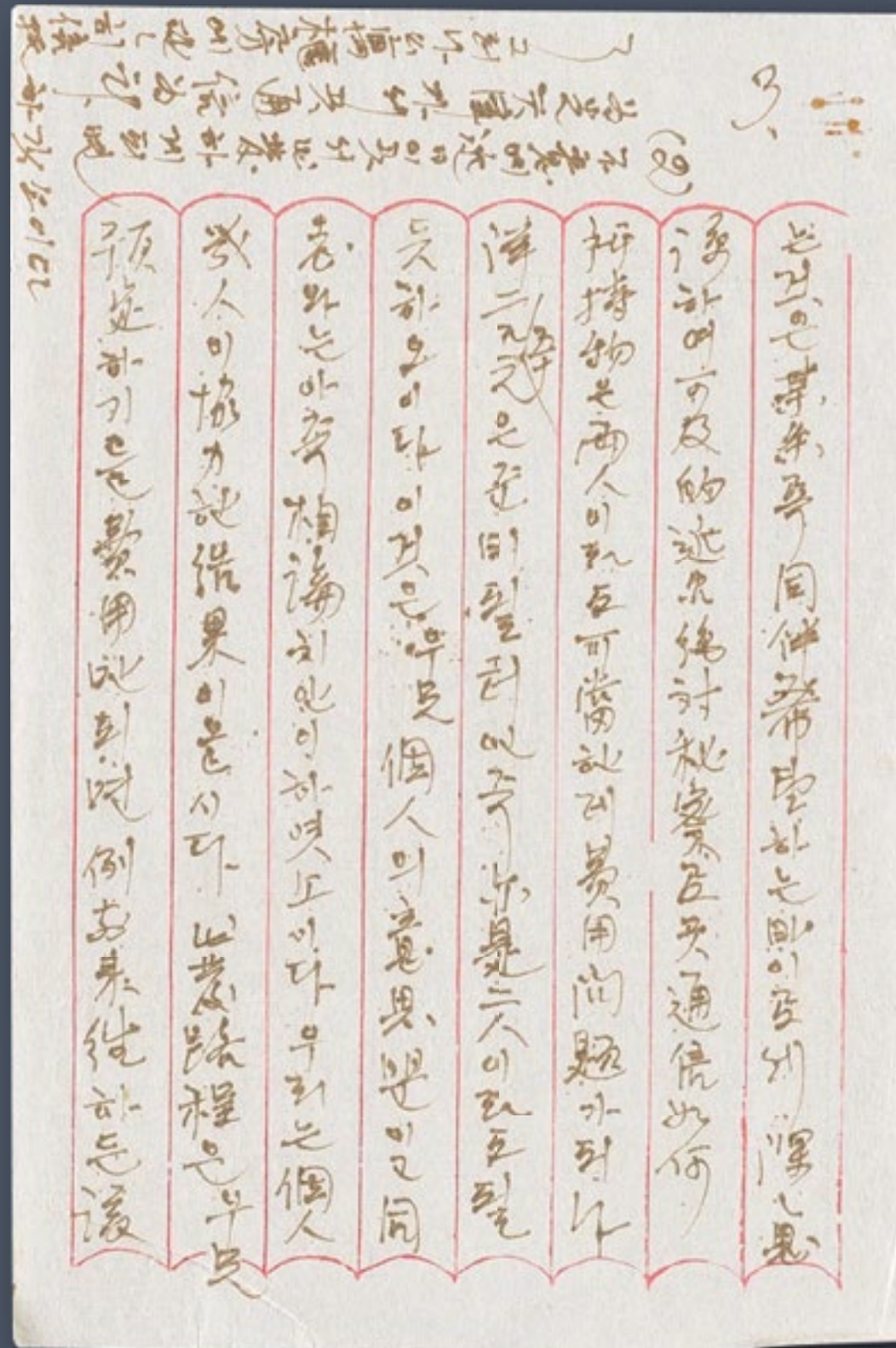
이승춘 군에게 회신
 방금 아우님의 친필로 쓴 글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을 참기 어렵네.
 여보시오 이 군, 과거 일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소. 이번 자네의 편지 중
 ‘현재 잘잘못이 많은 사회를 떠나 청아한 사회를 찾아가서
 정신 수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기에 몇 번씩 소리내어 읽었소이다.
 그 청아^{清雅}한 사회,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요?
 자네와 나 사이일지라도 해석이 서로 다를 터이지만,

상단 (추신) 4. 명현 형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상하이에 가는 것은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있는 사이에 자주 통신이나 합시다.
 언젠가 배에 올라 출발할 때, 간단히 마지막으로 다시 알리겠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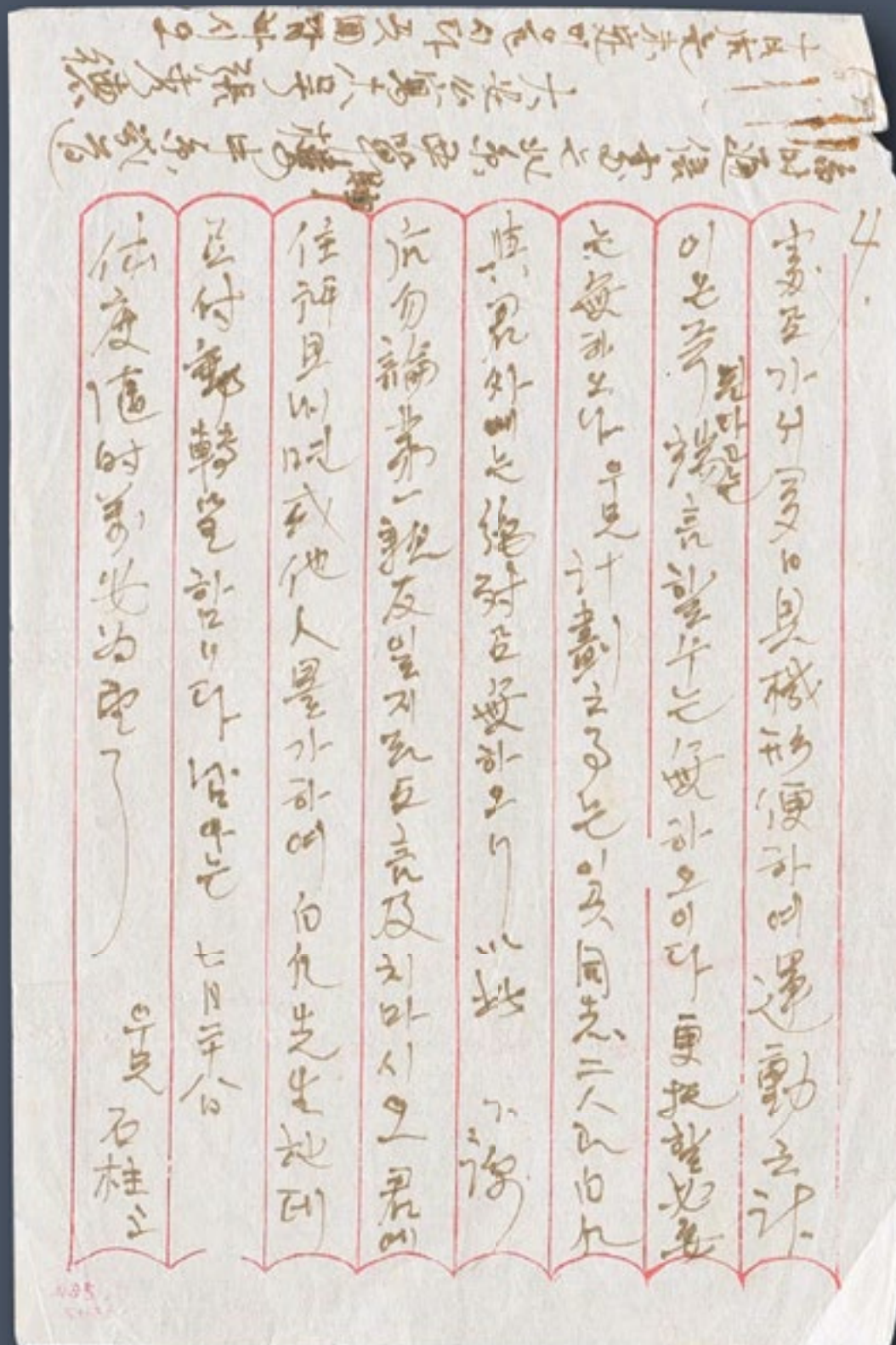
나는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청아한 사회는 당분간 찾을 수 없을 듯하여 보입니다.
 이 군, 내가 상하이^{上海}에서 출발한 후 4개월 동안 모모^{某某} 동지 몇 사람을 만나
 협의한 일은, 내가 걱정하고 서울로 출발하려고 운동한 결과
 요사이 소지물품(폭탄)은 다 흡족하게 구하여 얻었고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비용 몇백 원인데,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으나
 1개월 내외로 역시 마련될 것이올시다.
 이 군, 내가 바라는 것은

상단 (추신) 3. 아우님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함께 가지 못하여
 섭섭하기 짝이 없으나, 바라건대 (상하이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시오.



모쪼록 함께 행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로세. 심사숙고하여 되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절대 비밀리에 편지를 주시면 어떻겠소? 소지물(폭탄)은 둘이라도 알맞은데 비용이 문제가 되지만 중국돈 250원은 준비될 터이니 역시 두 명이라도 될 듯 하오이다. 이것은 나 개인의 뜻일 뿐이고 동지와는 서로 의논하지 않았소이다. 우리 개인 몇 사람이 협력한 결과올시다. 출발 노정은 내가 예상하기로는 비용만 되면 예전 오가던 그곳으로 가서

상단 (추신) 2.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이곳(베이징)에서 출발하게 되면 우선 텐진天津에 가서 곧 통신하리다. 그러나 공우 추방(베이징의 임시통신처)에 단단히 부탁하겠소이다.



며칠 형편을 보고 움직일 계획이지만,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소이다.
다시 부탁할 필요는 없겠으나 내 계획은 이곳 동지 두 명과 백범, 자네 외에는
절대 알지 못하니 이에 이러한 사정을 헤아린 후에는 물론 제일 친한 벗일지라도
언급하지 마시오. 자네 주소로 보내면, 혹 다른 사람이 볼까 염려하여
백범 선생에게 우편을 부쳐 전합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건강이 때때마다 모두 편안하길 바랍니다.

1925년 7월 28일 우형^{愚兄}* 석주 씀

상단 (추신) 1. 임시통신처는 '베이징 서단사루 중경 이도대안 공우 18호 장수덕'
10일 후는 미정입니다. 곧 회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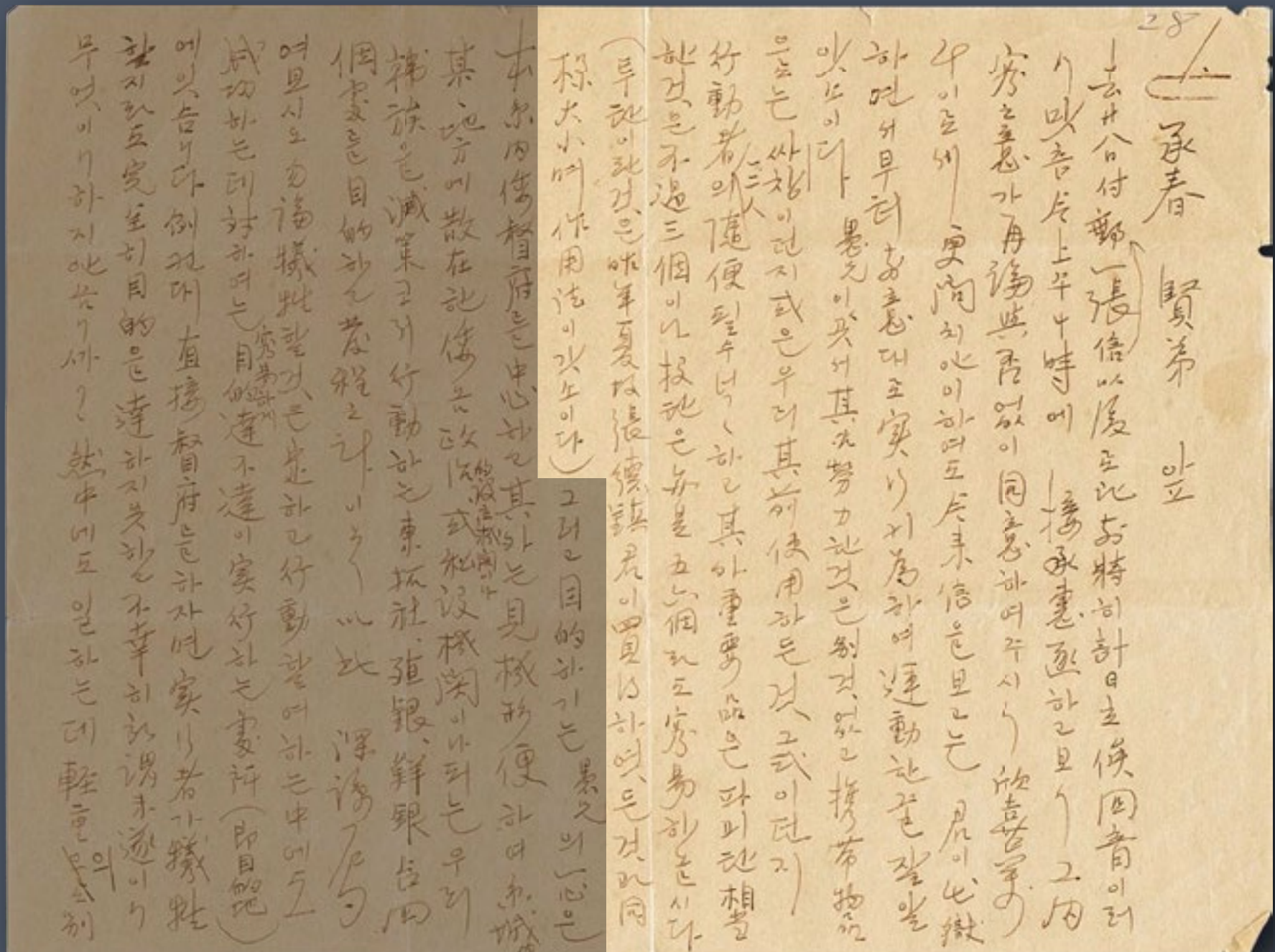
* 우형 : '어리석을 우'를 써서 아우뻔 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폭탄 투척 대상을 정해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1925. 8. 4.)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수 628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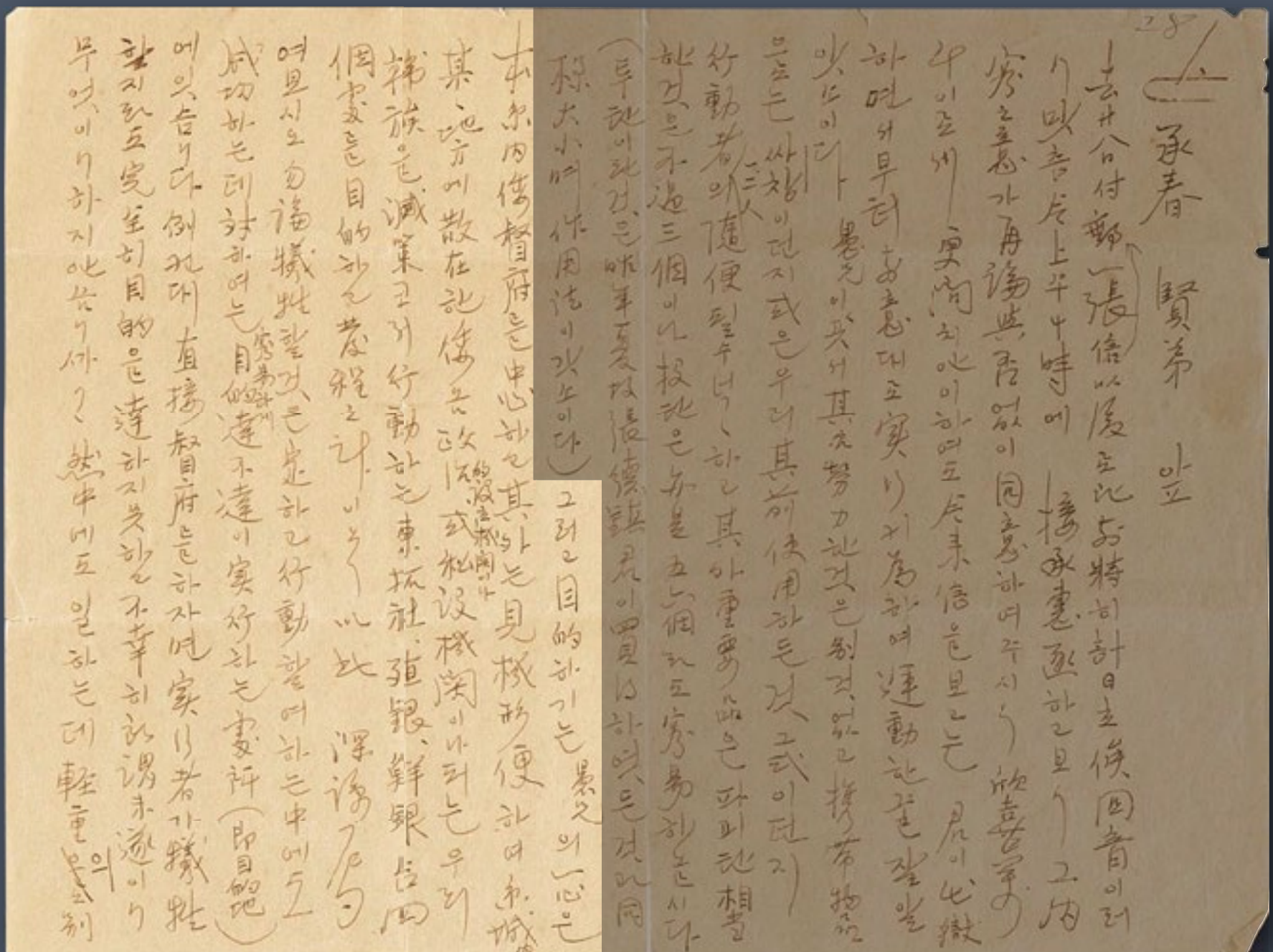
1-1



승춘 현제^{賢弟} 앞

지난 (7월 28일)에 부친 우편 한 장 이후로 전에 비해 특히 날을 세며 답장을 기다렸는데, 마침 지금 오전 4시에 편지글을 받고 보니 그 내용의 뜻이 재론의 여지 없이 동의하여 주어 매우 매우 기쁘오. 다시 묻지 않아도 이번에 온 편지를 보고는 그대가 출옥하면서부터 예전의 뜻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움직인 줄 잘 알았소이다. 내가 이곳에서 그간 노력한 것은 별것 없고 휴대품으로는 싸창(모제르권총)이든 혹은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그 권총이든 행동할 한두 사람이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넉넉하고, 그 외 중요품은 파괴탄(폭탄)에 가까운 것은 세 개에 불과하지만 투탄은 역시 5, 6개도 쉽게 준비될 것이오. [투탄이란 것은 작년 여름 고^故 장덕진^{1898~1924} 군이 사들였던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으며 작용법이 같소이다.]

* 현제 : '어질 현賢'을 써서 아우뻔 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그리고 목적으로 삼은 나의 한결같은 마음은, 서울 시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는 형편을 봐서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왜놈이 정치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혹은 사설 기관으로 우리 한민족을 얹애고자 교묘하게 행동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 등 모두 네 곳을 목적으로 삼고 길을 떠날 계획이니 이에 깊이 헤아려 주오.

여보시오. 물론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행동하려 할 때, 성공, 즉 쉽게 목적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는 실행하는 곳[즉 목적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직접 총독부 (폭파를) 목표로 하자면 실행자가 희생할지라도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행히 소위 미수未遂니, 무엇이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일 하는데 경중輕重의 차이

이런 황년지는 아니요나 동해 兩報 같은데着手하면未遂
此問題는決코善惡을되지만것으로自信한其証의함
나 實り反何此方面을宣傳이라잇게되든지勿論
하고日常 말하는아와같이물감을바른레도東振이나西振
같은데는無慮히大以上死傷外 권수잇음이다何故호하면
생각하여보시오海交通銀地大概같은形式이나
다시우림이다下層에陳列式으로안두事務보는當中에나
방아타하구두개此사하면外之없는것안이오리外之以上과
그말하면牛車같은것이右三平으로생각할수의것노안은主中
하기는極限의範圍定함이有到實하여實り若의마음대로
하는것이別無關係일듯하고그런데東振의建庫銀り

而此一人이同國時能히着手할수잇고나西處는
距離가不遠한까닭임이다西處地는本京城中央附近
이라黃金町附近이三層洋屋임이다(餘如구려거너같이)
君은小바 우형은每多에手入然히豫算로잘失沙
한다比로張者의手入은 우형은是처不知이외外各服
運動에討하여는하구르다하구르想違하구르하구르
노이다그런데우형은是後로此히生費함이다一個不柱는
암모힘있음이서정성곳하기는結心함이成功く하는것은
自然에백감다此外는別道運가잇는지는문은거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동양척식주식회사나 두 은행(식산은행, 조선은행)과 같은 곳에 (폭파 의거를) 착수하면 미수라는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사를) 실행한 후 어떤 방면으로 알려질 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늘상 말한 것처럼 몸값을 논하더라도 동양척식주식회사나 두 은행 같은 데는 무려 10인 이상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시오. 세 곳은 상하이^{上海}의 교통은행과 대개 같은 형식인 까닭입니다. 아래층에 진열하는 식으로 앉아서 사무를 보는 곳에다가 ‘받아라’ 하고 두 개만 폭탄을 던지면 외상이 없지 않을 것이오.

이상과 같이 말하면, 목표로 삼는 것이 이 세 곳이라 생각할 수 있겠소만, 주된 것은 총독부로 결정하고 출발한 후에는 도착한 실행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별로 관계가 없을 듯하오.

그런데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 두 곳은 혼자서도 동시에 능히 착수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장소는 서울 중앙쯤인데 황금정사거리 3층 양옥입니다[속명 구리개네거리].

이 군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매사에 끈수없이 깐스레 계획도 잘못하면서
한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인 줄을 나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운동만큼은 하고, 하고, 또 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였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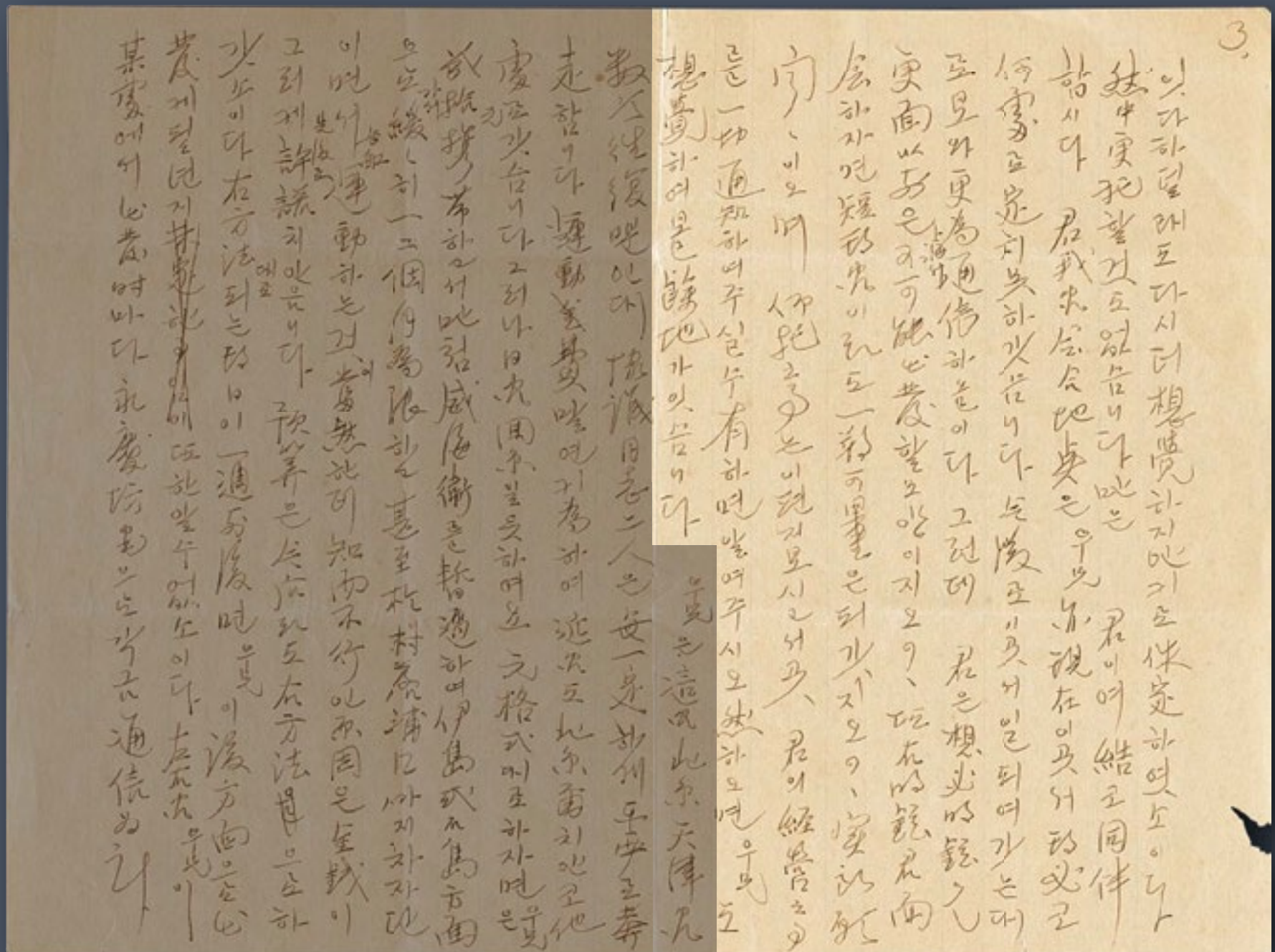
그런데 나는 지금 이후로 이같이 생각합니다.

일개 석주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정성껏 하기로 결심하고 성공, 성공하는 것은 하늘에 맡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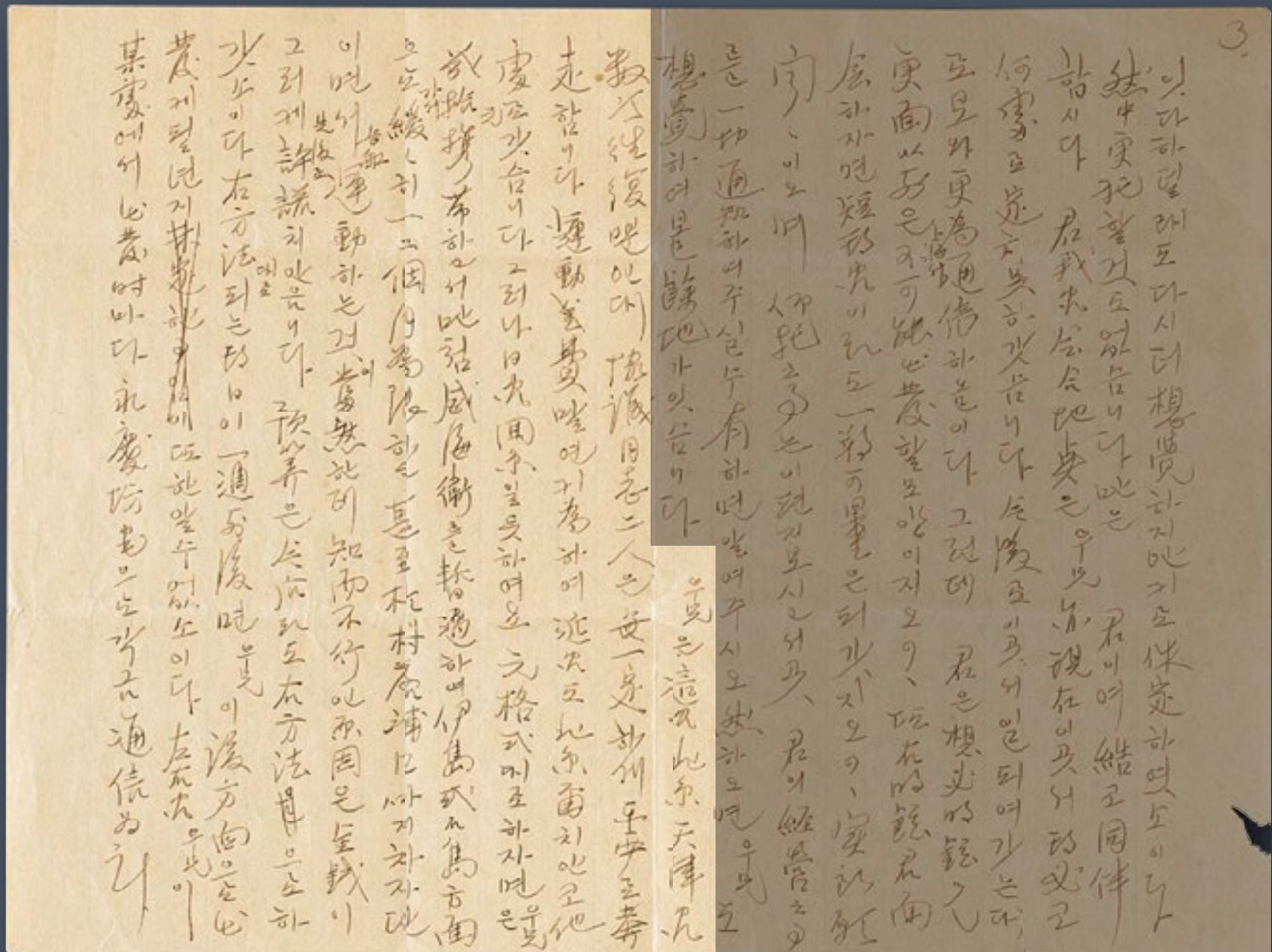
이외에 별도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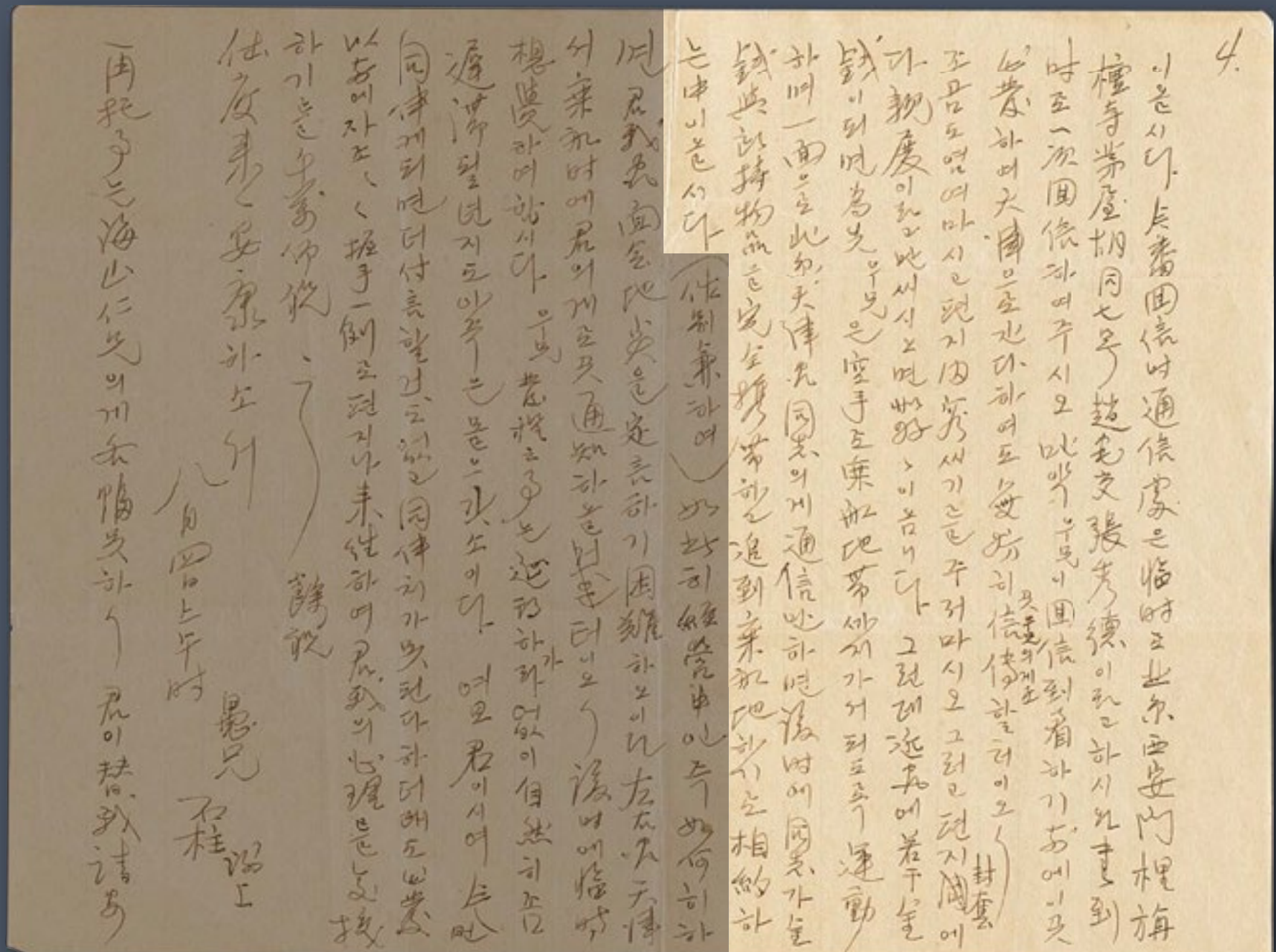
있다 할지라도 다시 더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소이다.
 그런 중에 다시 부탁할 것은 없지만 이 군, 결단코 함께 합시다.
 이 군과 내가 만날 지점은 나 역시 현재 이곳에서 반드시 어디라고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다시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은 아마도 반드시 명현 형을
 다시 보기 전에는 상하이로 떠나기 어려운 모양이지요?
 또 명현 군을 면회하자면 단기간이라도 한 달 가량은 되겠지요?
 실로 소식을 전해 듣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일은 이 편지를 보고
 이 군이 계획한 일 전부를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2



나는 근래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등을 여러 차례 왕복했을 뿐인데,
 협력하는 동지 두 명은 정해진 곳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둘은 운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래에도 베이징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베이징으로 돌아올 듯 하오.
 원래대로 하면 나는 몇십 원을 가지고 맨 처음 웨이하이^{威海}를 잠시 거쳐 이도^{俚島} 혹은 석도^{石島}
 방면으로 가서 천천히 1, 2개월을 기한으로 삼아 심지어 시골 포구까지 찾아다니며
 배를 구해야 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금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지금 이후라도 이 방법으로 하겠소이다.
 이 방법대로 되는 날씨가 1주일 전후면 내가 이 방면으로 출발하게 될지는
 또한 알 수 없소이다. 좌우간 나는 모처에서 출발할 때마다 영경방택(김구의 숙소)으로
 가끔 편지를 전할 계획이올시다.

4-1



이번 회신을 보낼 때 통신처는 임시로 '베이징 서안문리 견단사 모옥호동 7호 조택을 통해 장수덕에게'라고 하여 편지를 받는 대로 1차 회신해 주시오.

만약 회신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곳을 출발하여 텐진으로 간다고 해도 상관없이 곧 내게로 전달될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시고 편지 내용 쓰기를 주저 마시오.

그리고 편지 봉투에 '친전 親展*'이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약간의 금전이 생기면

우선 나는 빈손으로 배 타는 구역까지 가서 되도록 활동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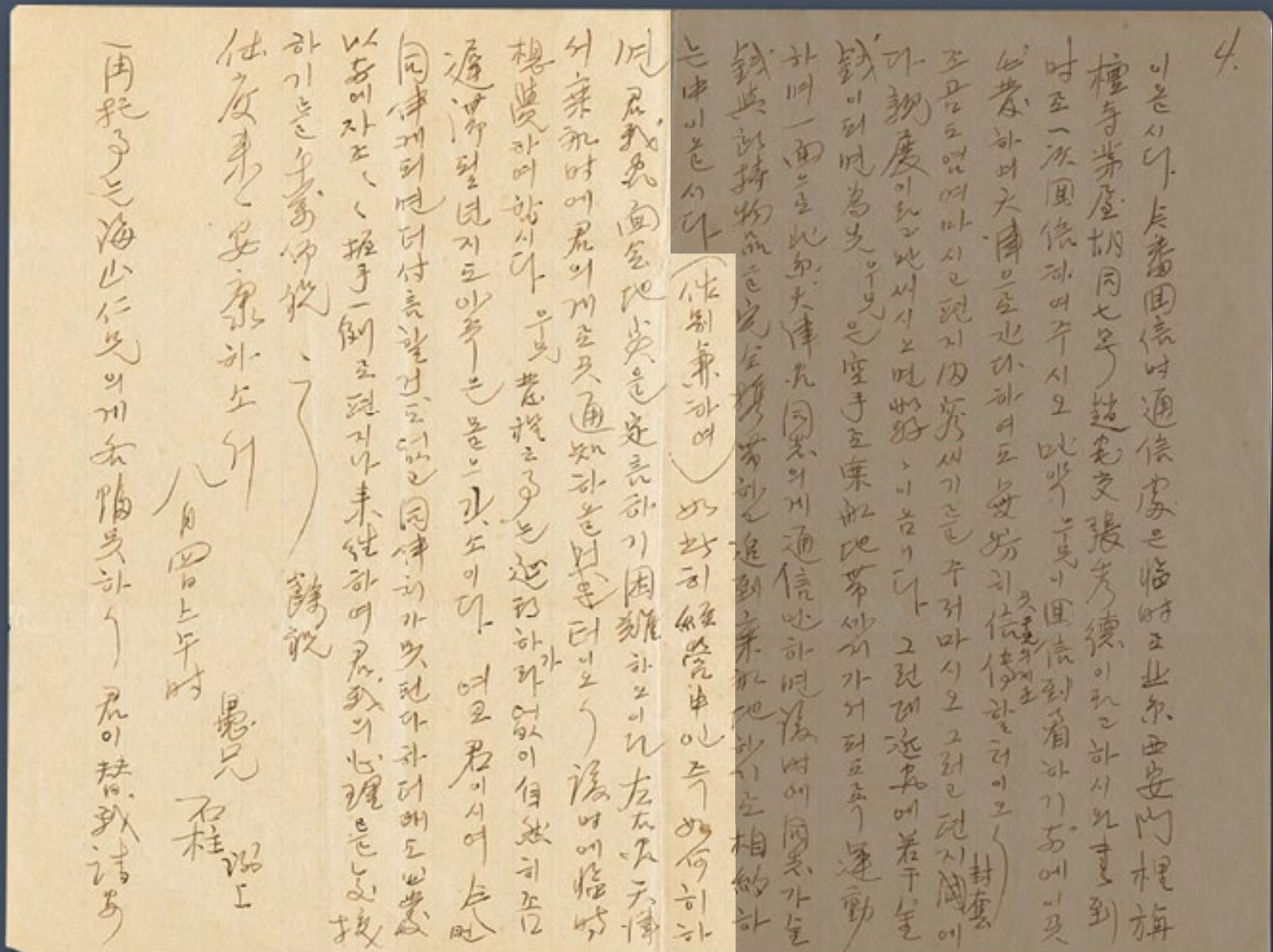
한편으로 베이징과 텐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에게 편지를 보내

금전과 소지물품(폭탄)을 완전히 몸에 지니고

추후 배 타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중이요.

* 친전 : 직접 펴보기를 바람

4-2



[작별을 곱하여] 이와 같이 계획 중이니 어떡하든 이 군과 나 사이에 만날 지점을 말로 정하기가 곤란하오이다. 좌우간 텐진에서 배에 오를 때 그대에게 곧 통지할 것이니 그때 상황에 맞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길을 떠나는 일을 연기하거나 하는 수 없이 자연히 좀 지체할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소이다. 여보 이 군, 이번에 함께 하게 되면 덧붙일 말도 없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약속하는 것 같이 편지나 주고받으며 그대와 나의 마음을 주고받기를 매우 매우 우러러 바랄 뿐이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건강이 오래오래 평안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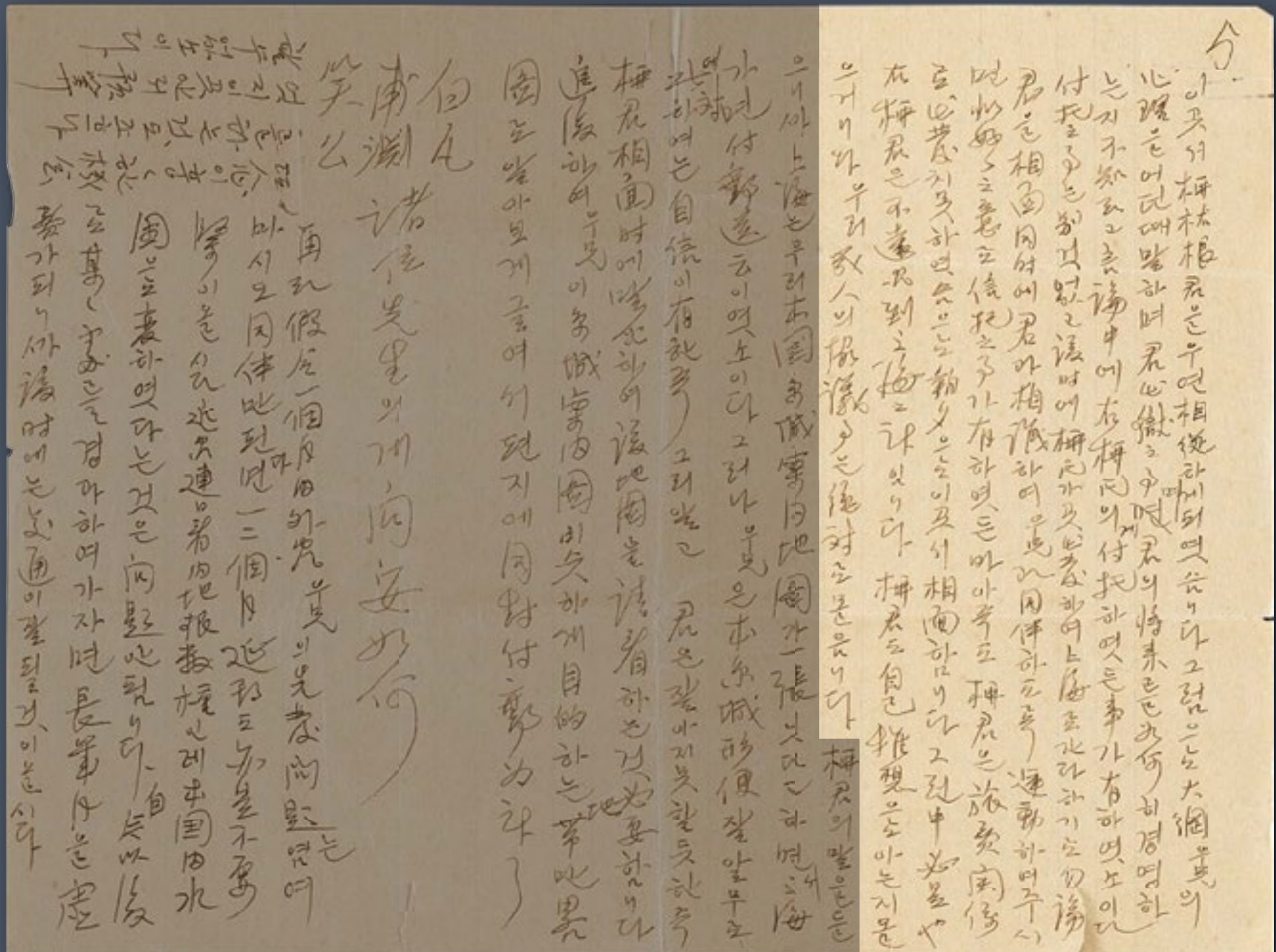
8월 4일 오전

우형* 석주가 답장을 씀

(추신) 다시 부탁할 일은 해산(김정묵 金正默 1888~1944) 형님에게 따로 안부를 전하지 못하니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안부를 전해주시오.

*우형 : '어리석을 우뚝'을 써서 아우뻔 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5-1



이곳에서 유우근* 군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강 나의 마음이 어떤지 말하였고, 이 군이 출옥한 일, 이 군이 장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중에 유 군에게 부탁했던 일이 있었소이다.

부탁한 일은 별 게 아니라 유 군이 곧 출발하여 상하이로 간다고 하기에,

그대를 만나거든 서로 상의하여 나와 함께 하도록 힘써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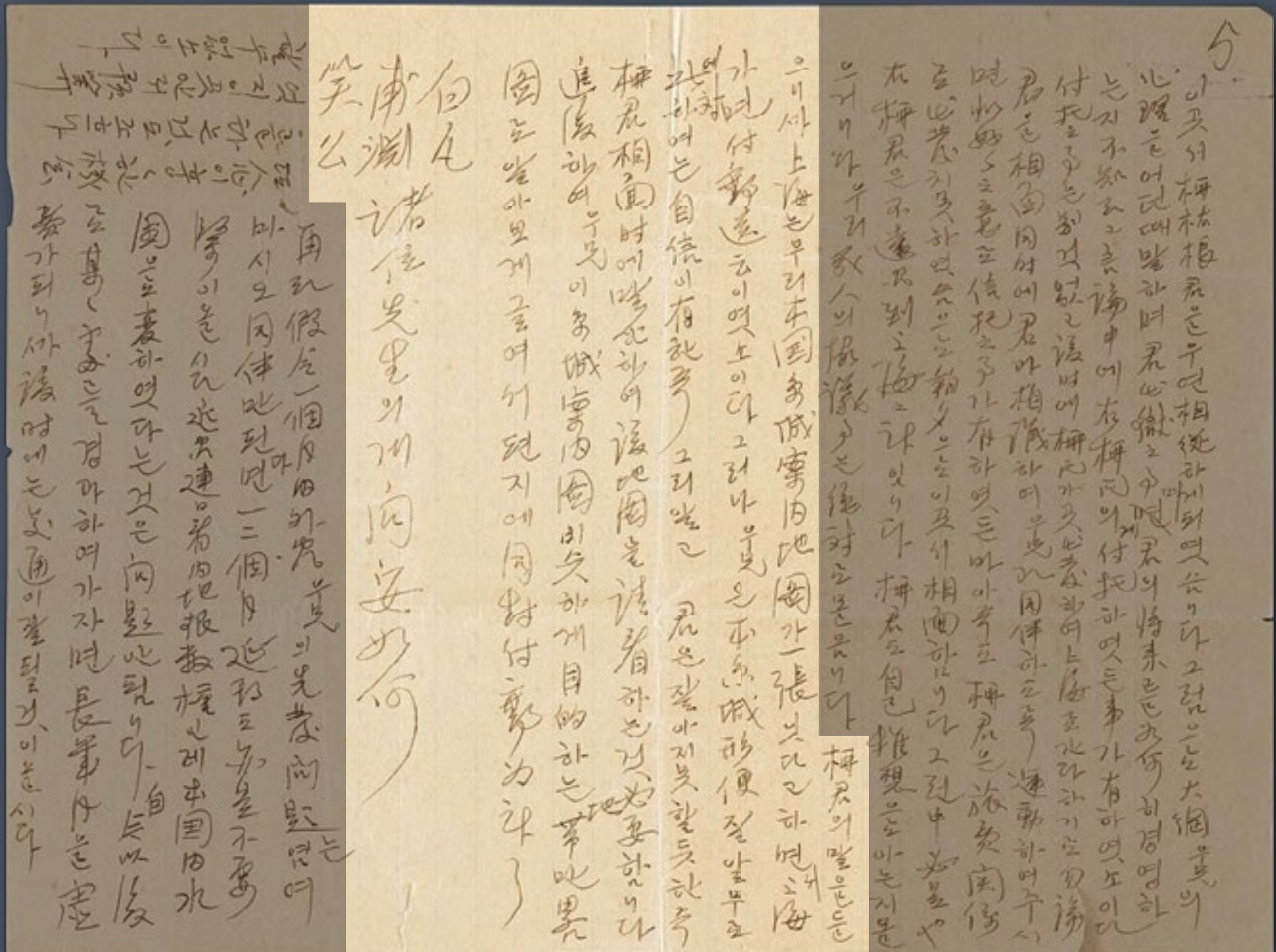
아직도 유 군은 여비 관계로 출발하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이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지만 아마 유 군은 머지않아 상하이에 도착할 것입니다.

유 군이 자신이 추측하여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두 사람이 협의한 일(국내 일제 기관 폭파 계획)은 절대로 모릅니다.

* 유우근 : 유자명 柳子明 1894~1985의 가명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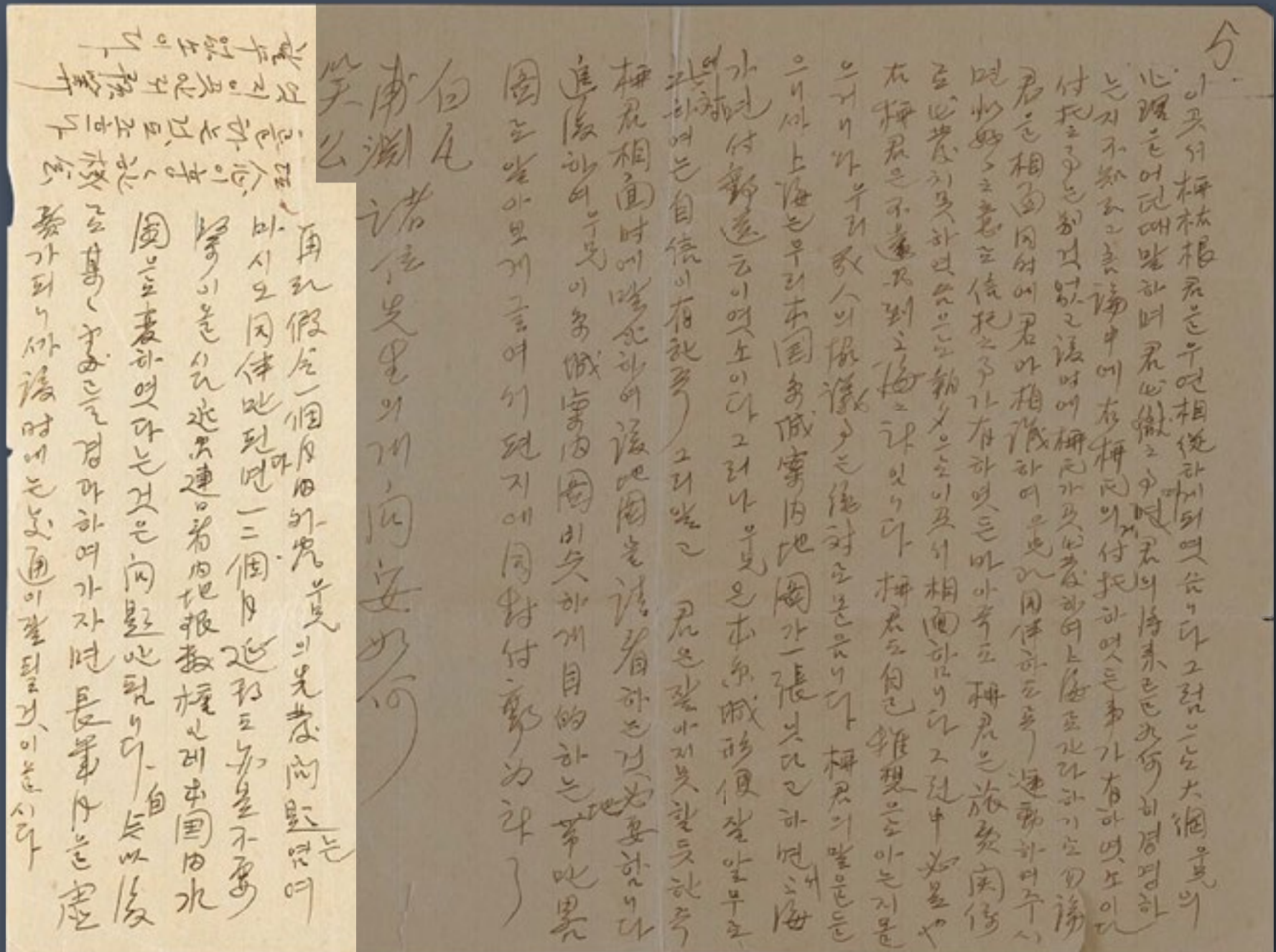
유 군의 말을 들으니 상하이에 우리 본국 경성안내지도가 한 장 있다면서 상하이에 가면 부쳐주겠다고 말하였소이다.

그러나 나는 본래 경성의 형편을 잘 알기에 이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니 그리 알고, 이 군은 잘 알지 못할 듯하니 유 군을 만났을 때 말씀하여 그 지도를 보여달라 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내가 경성안내지도 비슷하게 목표로 삼은 구역만 약도로 알아보게 그러서 편지에 동봉하여 우편으로 부칠 계획입니다.

백범, 보연(김보연 金甫淵 1886~1928), 소공(손두환 孫斗煥 1895~?) 등 여러 선생님께 문안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3



두 번째 이어서 글을 씁니다.

가령 1개월 내외로 내가 먼저 출발하는 문제는 염려 마시오.

함께 하기만 한다면 1~2개월 연기하는 것 또한 꼭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래 연일 내지(조선) 신문 여러 개를 보는데,

본국(조선)이 장마로 인해 물바다로 변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후로 모모처^{某某處}를 거쳐 가면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될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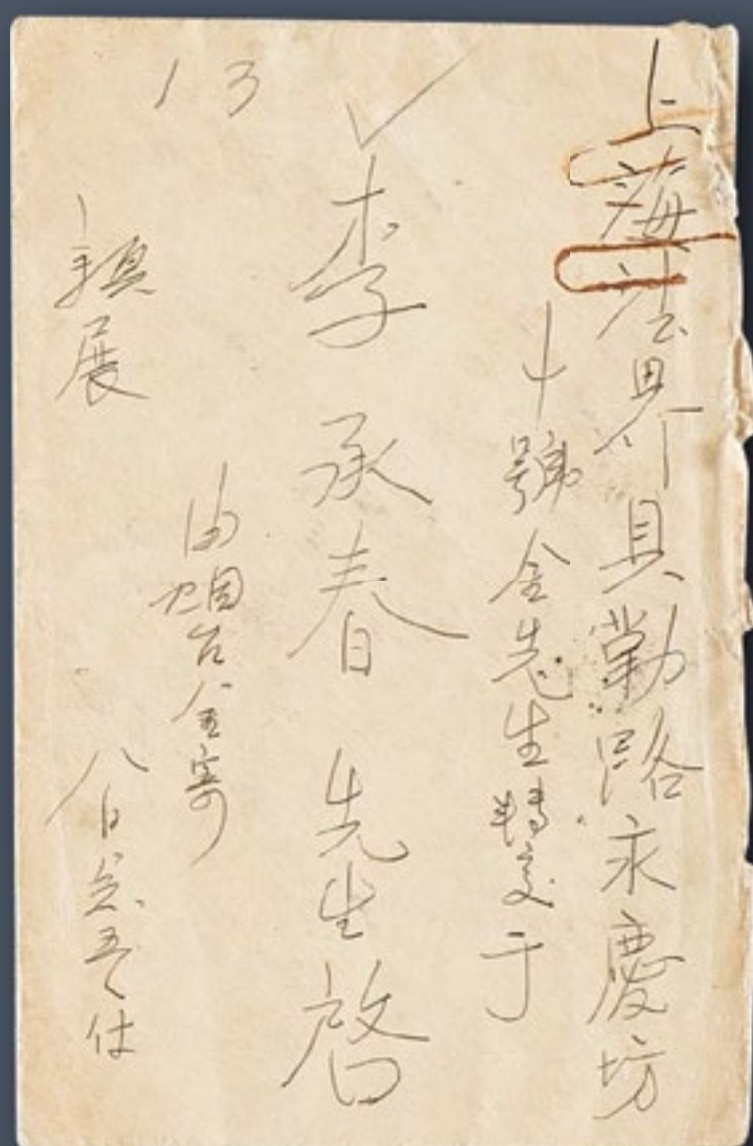
그때가 되면 교통이 잘될 것이올시다.

또 인심이 흥흥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으나, 어찌 되었든 이곳에 앉아서
예측할 수 없소이다.

귀국 배편을 구하기 어려움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1925. 8. 12.)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수 62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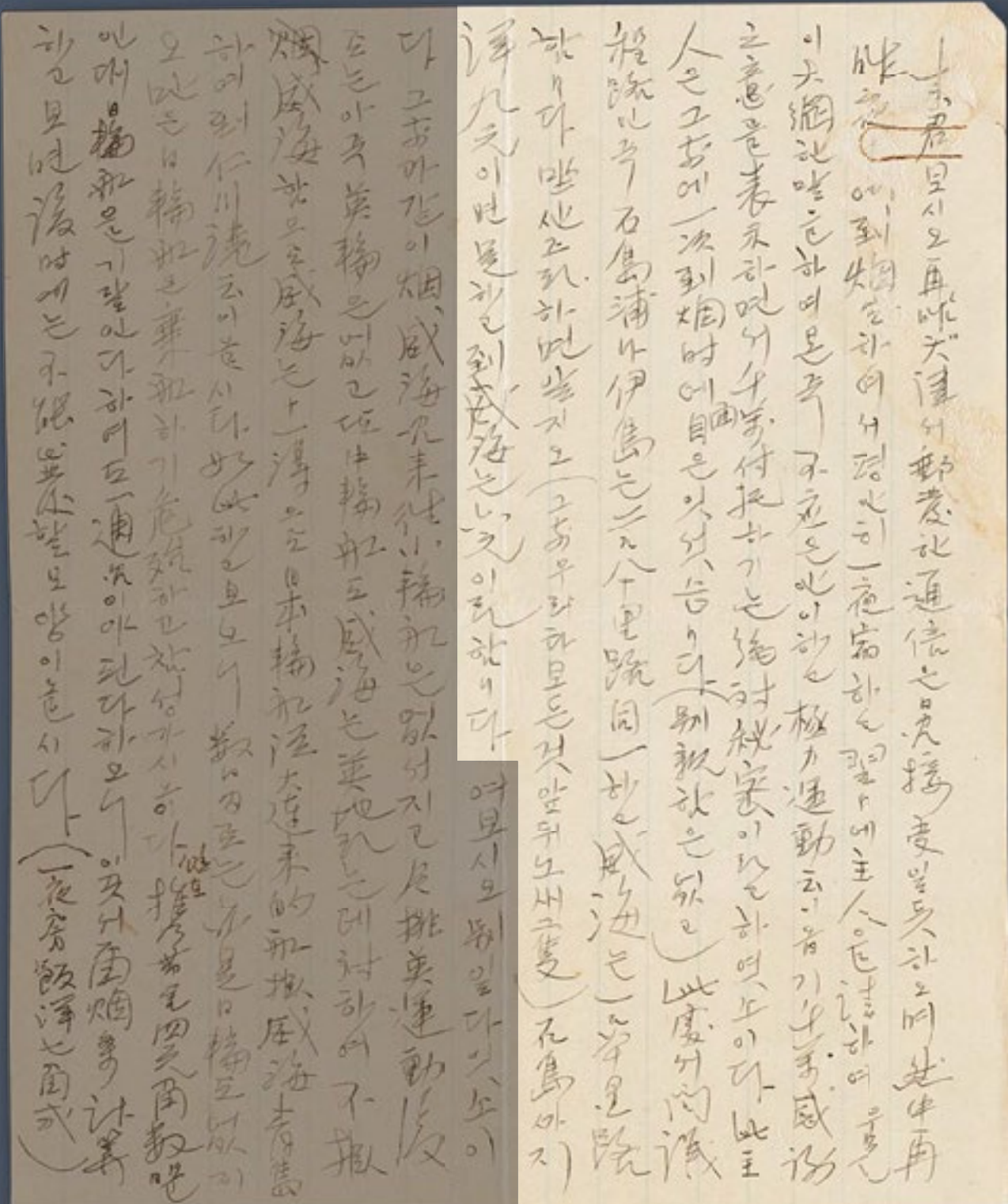
상하이^{上海} 프랑스조계 패룩로 영경방 10호*
김 선생을 통하여
이승춘 선생에게

옌타이^{烟台}에서 보냄
8월 25일*

* 영경방10호 : 1922년부터 약 5년 간 김구와 가족이 살았던 집주소

* 편지는 8월 12일에 썼으나 보낸 것은 8월 25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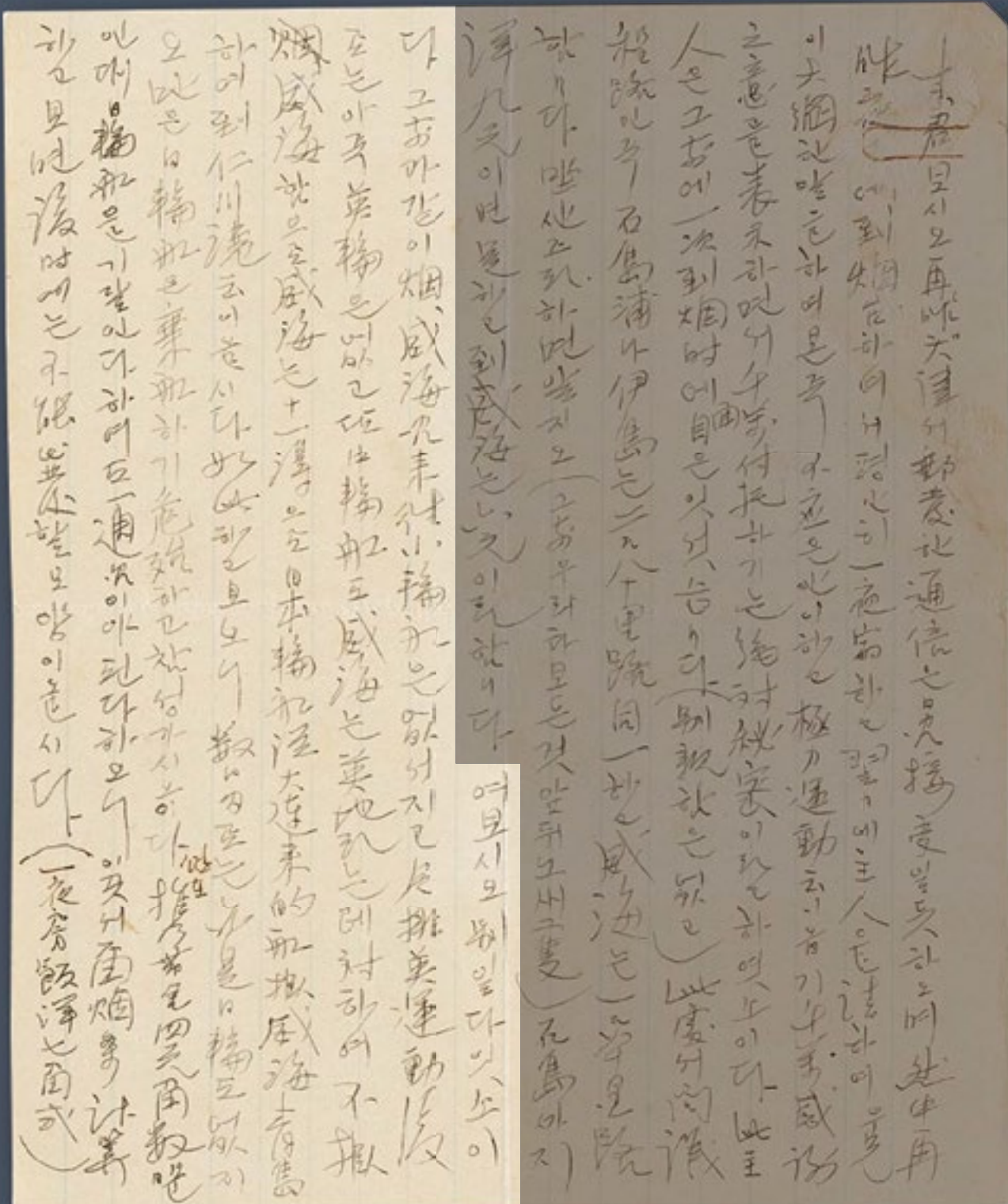
1-1



이 군 보시오.

사흘 전에 텐진 天津에서 우편을 통해 보낸 편지는 며칠 안에 받을 듯하오.
그러던 중 엿그제 밤에 엔타이 煙台에 도착하여 평안히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주인을 불러 청하여 내가 대강의 사정을 말해 보니,
거절하지 않고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 하여 몹시 감사한 뜻을 표하면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였소. 이 주인은 이전에 1차로 엔타이에 왔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특별한 친분은 없고]. 이곳에서 길을 물으니,
석도 石島나 이도 俚島는 280리로 거리가 같고, 웨이하이 威海는 180리라고 합니다.
여기 타고 앉아 갈 것[그 전에 우리가 타 보았던, 앞뒤 노새 2마리가 끄는 것]으로
석도까지 중국돈 9원이면 족하고 웨이하이까지는 6원이라 합니다.

1-2



여보시오. 별일이 다 있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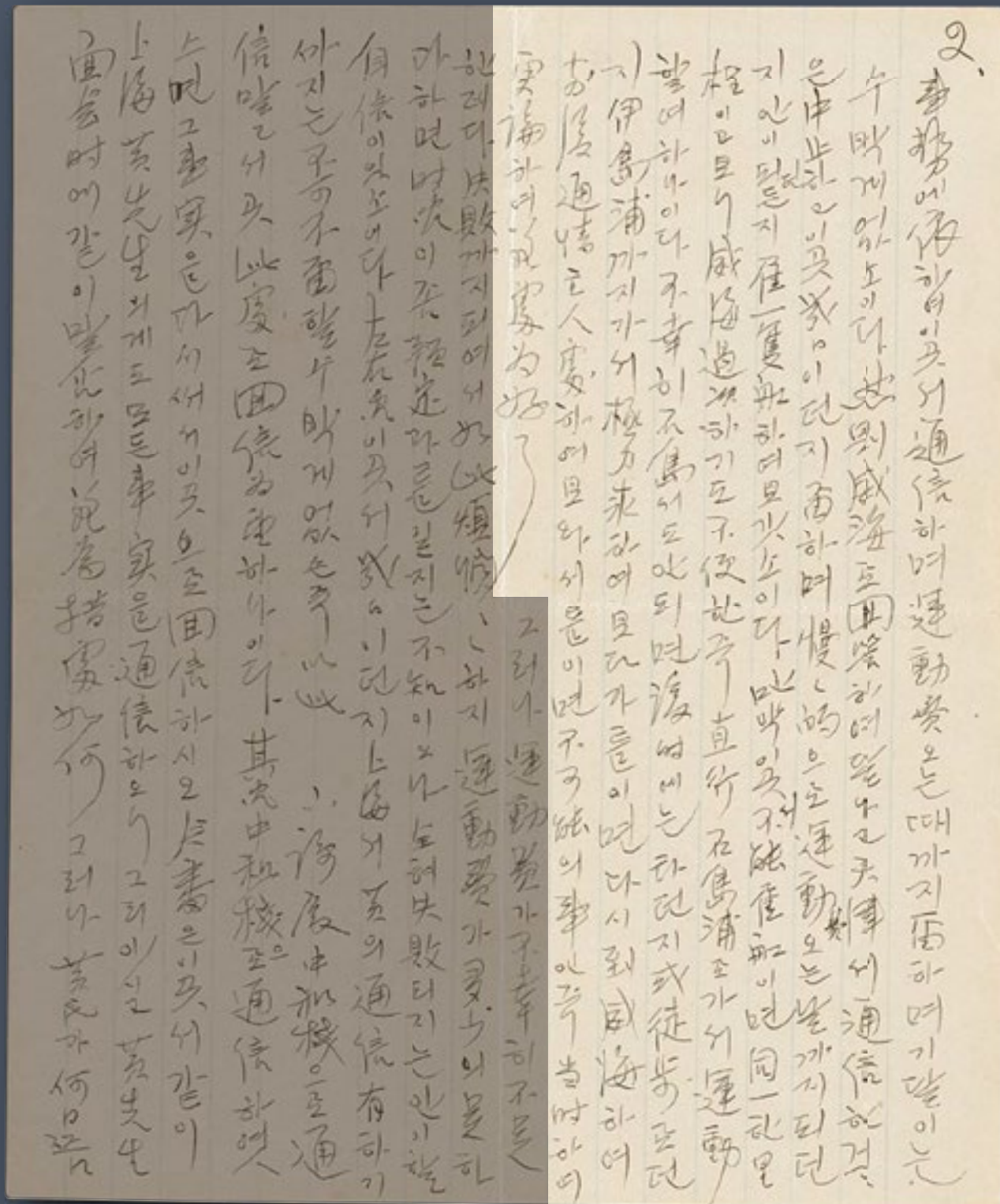
그 전과 같이 엔타이와 웨이하이 사이를 오가던 작은 윤선^{輪船}*은 없어지고
지금 배영운동* 후로는 아직 영국 윤선은 없고
중국 윤선은 위해가 영국 땅이라서 가지 못합니다.

다만, 웨이하이까지는 11원으로 일본 윤선이 다렌^{大連}에서 와서 웨이하이·
칭다오^{靑島}를 거쳐 인천항까지 운항한답니다. 이를 살펴보니 수일 내로는 역시
일본 윤선도 없지만, 이를 탑승하는 것은 위태롭고 참 성가십니다.
현재 가진 돈은 4원 몇십 전뿐인데 일본 윤선을 기다린다고 하여도
1주일은 되어야 한다고 하니, 이곳 엔타이에 머물며
예상해 보면 때가 되어도 출발하지 못할 모양이올시다.

[하룻밤 방값과 식비는 중국돈 7각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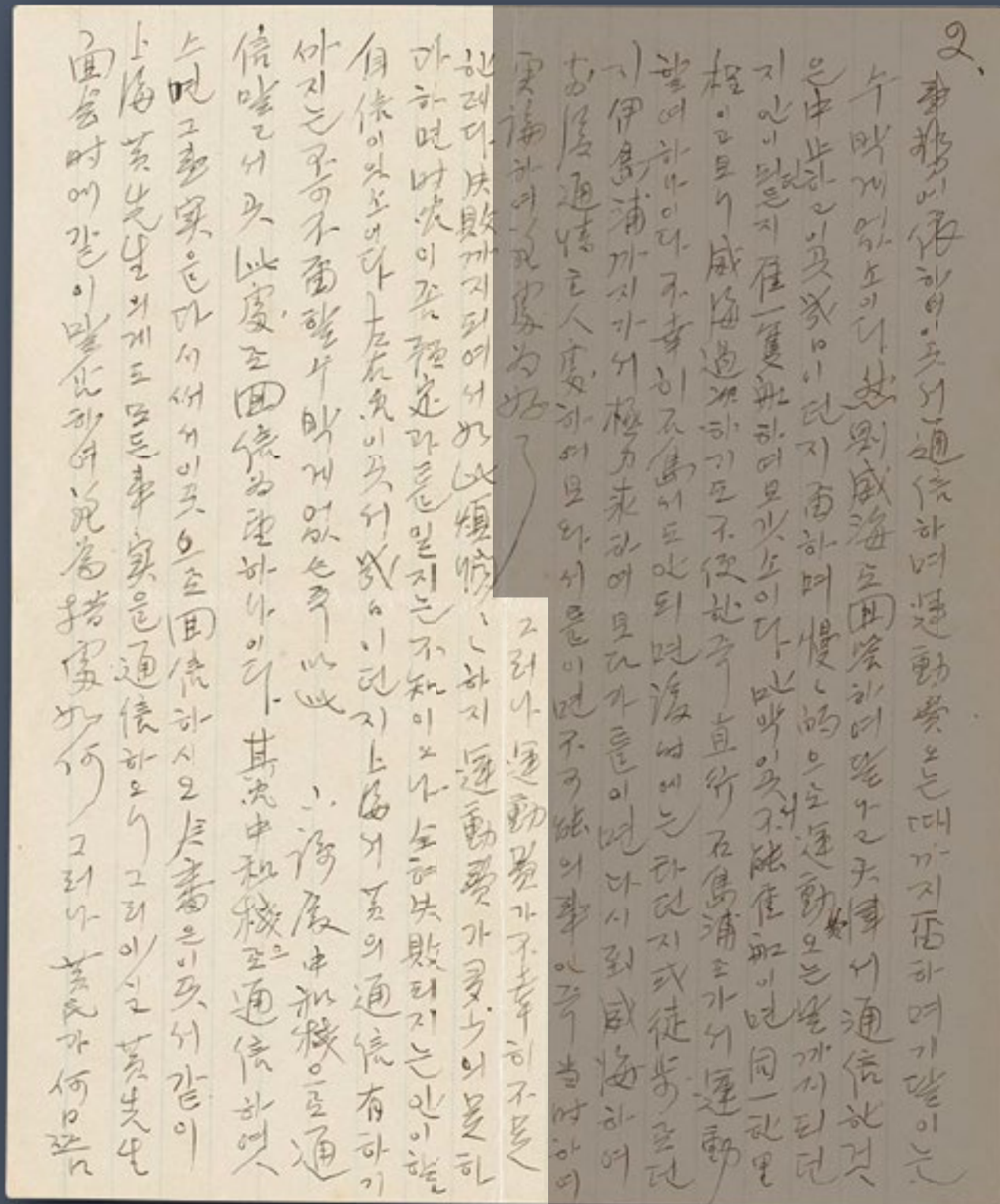
* 배영운동 : 1840년 아편전쟁 후 중국에서 일어난 영국 배척 운동

* 윤선 : 증기선



일의 형편에 따라 이곳에서 편지를 보내며
운동자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소이다.
그러니 웨이하이로 회답해 달라고 텐진에서 편지한 것은 중지하고,
이곳에서 며칠이든지 머물면서 지루하게 운동자금이 오는 날까지
되든 안 되든 배를 빌려 보겠소. 만약 이곳에서 배를 빌리지 못하면 동일한
거리에 있는 웨이하이를 거쳐서 가거나, 그것이 불편하면 곧바로 석도로
가서 이동하려 합니다. 불행히 석도에서도 안 되면 이후에는
배를 타든지 혹은 걸어서 이도포까지 가서 힘껏 배를 구해보겠소.
그마저 틀어지면 다시 웨이하이로 와서 주인에게 앞뒤로 통사정을 해 보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니,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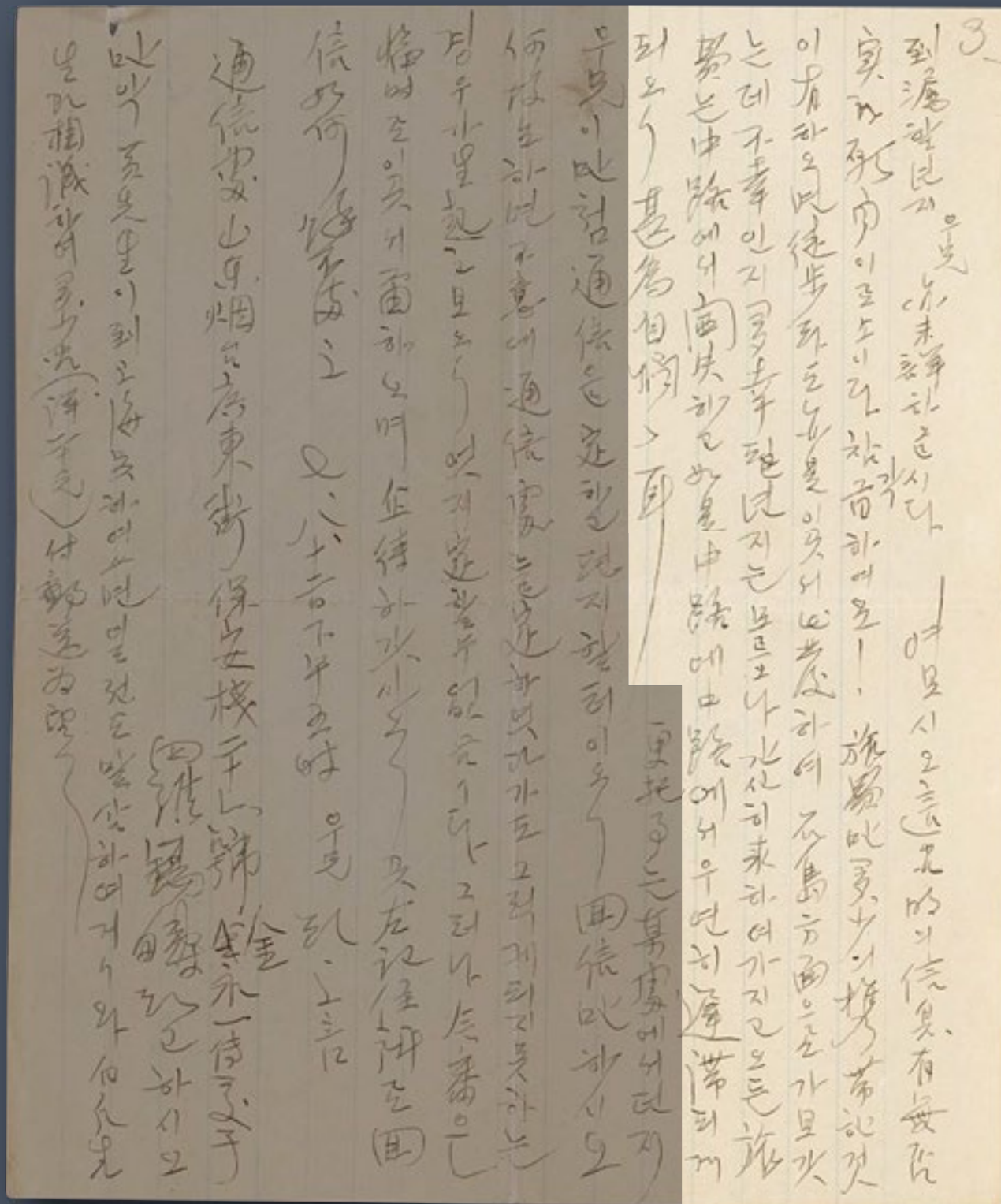
2-2



그러나 운동자금이 불행히 부족한 데다 실패까지 하면
 이같이 번민하겠지만, 운동자금이 다소 넉넉하면 시간이 좀 예정과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실패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소이다.
 좌우간 이곳에서 며칠이든지 상하이에서 황 선생(황익수)*의 편지가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중화잔으로 편지를 보내지 말고 이곳 엔타이로 회신 바랍니다.
 그간 중화잔으로 편지를 보냈으면 그 사실을 다시 써서
 이곳으로 편지를 보내시오. 이번에는 이곳에서 상하이의 황 선생에게도
 모든 사실을 편지로 보내니 그리 아시고 황 선생 면회 시에 같이 말씀하여
 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황 선생이 언제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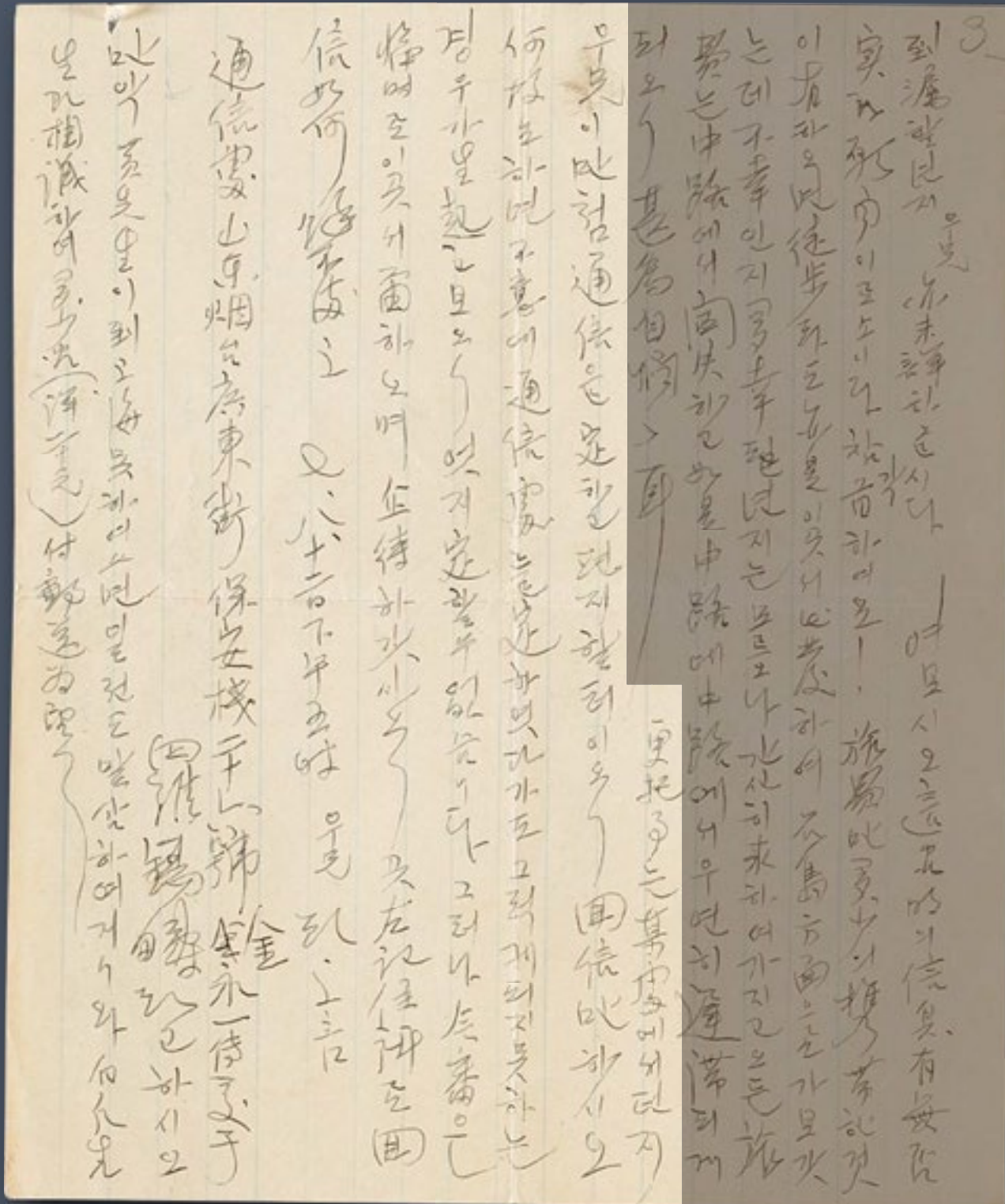
* 황익수 黃益洙 : 호가 해관이라 황해관으로도 부름

3-1



상하이에서 올지는 나 역시 모르겠습니다.
 여보시오. 근래에 명현 군의 소식이 있었는지요?
 참으로 소식을 전해 듣길 바랍니다.
 참 심각하고 급하오!
 여비만 다소 지니고 있다면 도보로라도
 이곳에서 출발하여 석도 방면으로 가 보겠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간신히 구하여 가지고 있던
 여비마저 도중에 잃어버렸소이다.
 이같이 가던 길이 우연히도 지체되니
 심히 스스로 연민과 울분을 느낄 뿐이요.

3-2



다시 부탁할 일은 모처^{某處}에서든지 내가 맨 처음 통신처를 정하고 편지할 터이니
회신만 하시오. 무슨 까닭에서인지 뜻하지 않게 통신처를 정하였다가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보니, 어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임시로 이곳에 머물며 기다리겠으니, 곧 왼쪽에 쓴 주소로
회신하면 어떨지요.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립니다.

1925년 8월 12일 오후 5시
우형* 나석주 씀

(추신) 통신처 '산둥 옌타이 빈동가 보안잔 26호 김영일*'을 거쳐서 나석주에게'
라고 하시오. 만약 황선생이 상하이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일전도 말씀드렸거니와
백범 선생과 상의하여 얼마간[중국돈 20원]을 보내 주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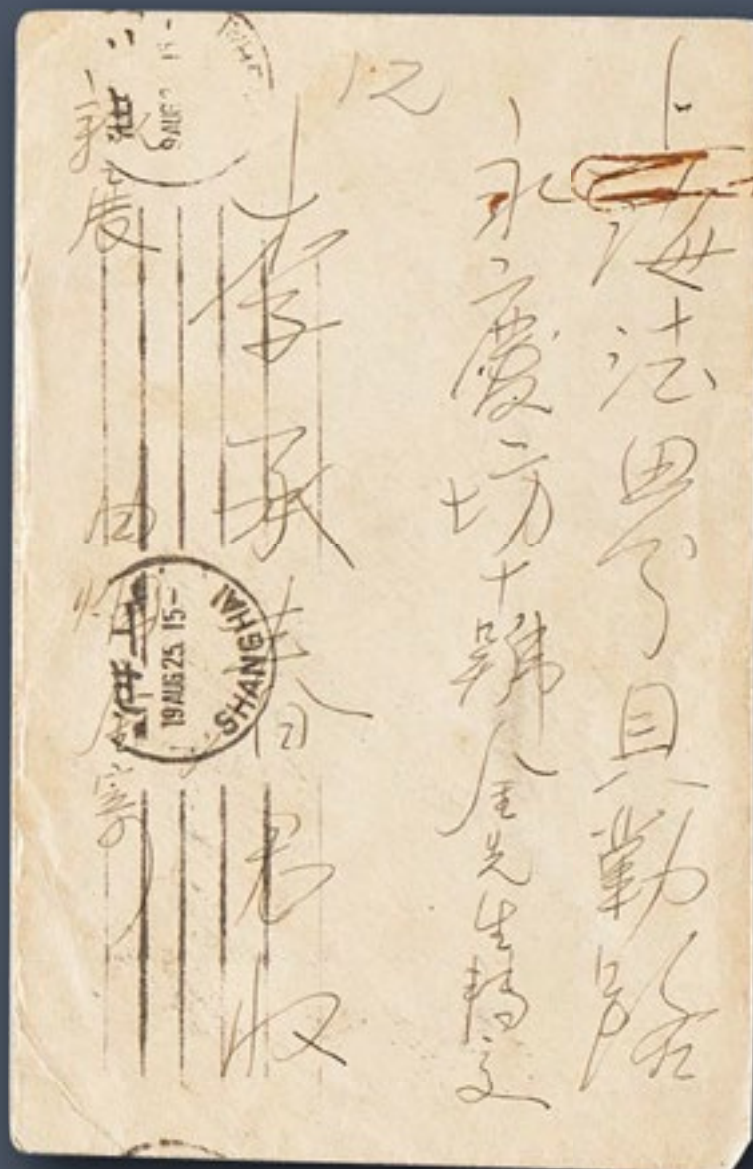
*우형 : '어리석을 우뚱'을 써서 아우뻔 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김영일 : 나석주의 가명

의열투쟁의 필요성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1925. 8. 14./8. 25.)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수 628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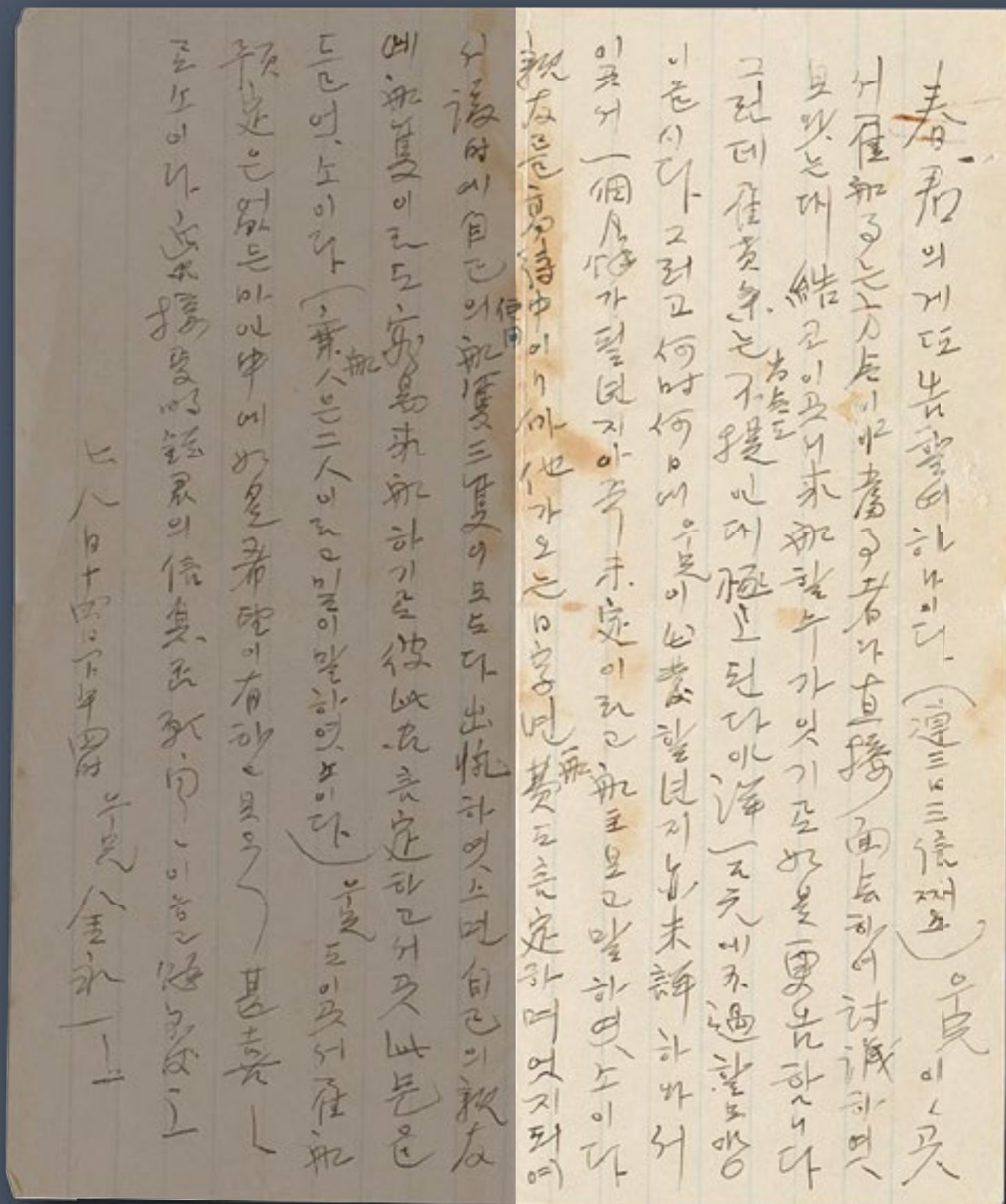


상하이^{上海} 프랑스조계 패룩로 영경방10호*
김구 선생을 통하여
이승춘 군에게

엔타이^{烟台}에서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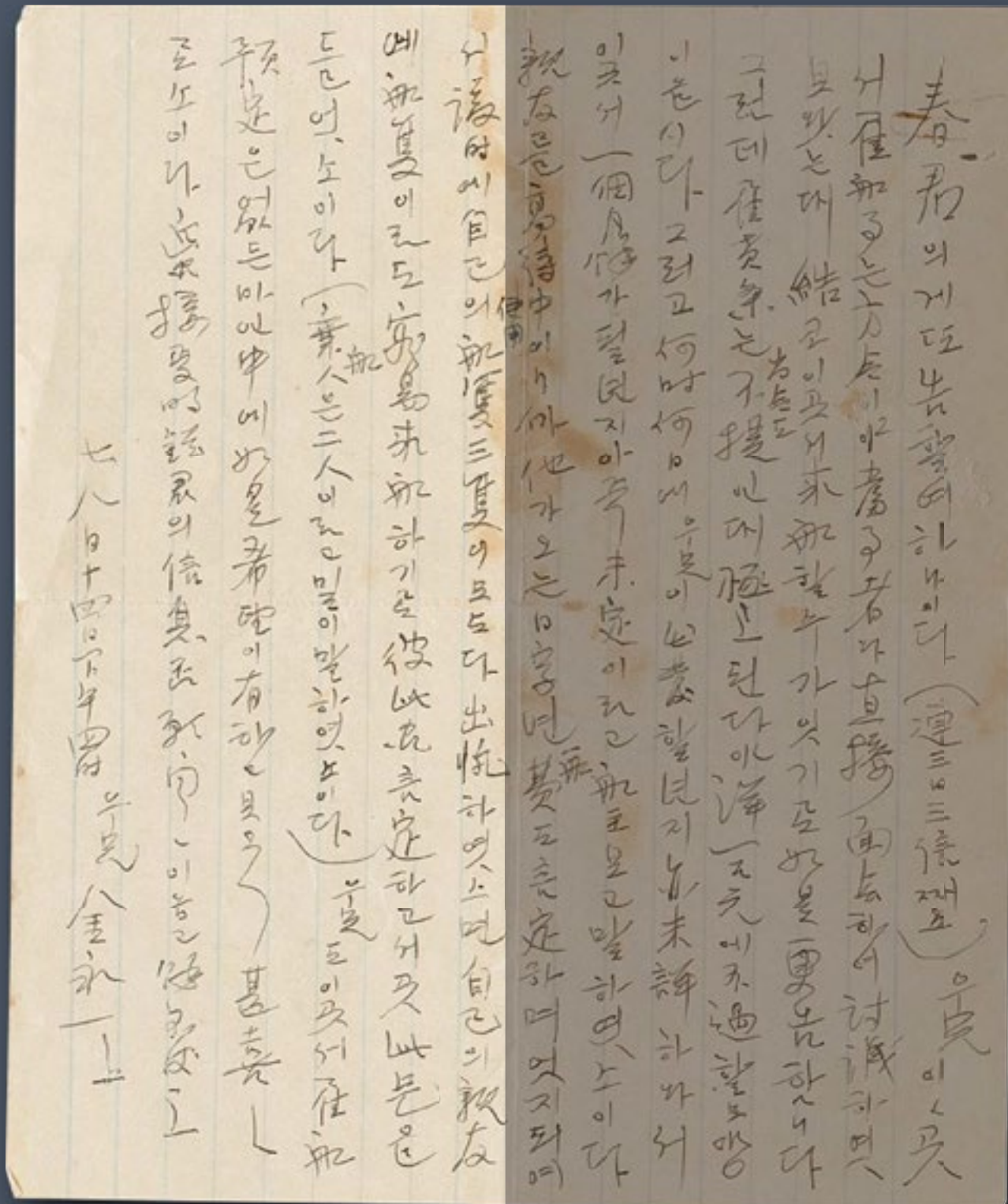
* 영경방10호 : 1922년부터 약 5년 간 김구와 가족이 살았던 집주소

1-1



승춘 군에게 또 알리려 합니다. [연 삼일 동안 세 번째 편지요]
나는 이곳에서 배를 세내는 일로 방금 당사자와 직접 만나 토의하였는데,
필시 이곳에서 배를 구할 수 있기에 이같이 다시 알립니다.
그런데 배의 임대료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가장 비싸다고 해도
중국돈 100원에 불과한 모양이올시다.
그리고 언제 내가 출발할지 또한 확실하지 않아 이곳에서 1개월 남짓이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선주에게 말해두었소이다.
친우^{親友}를 기다리는 중이라 그가 오는 날짜에 뱃삿을 정하고, 만일 어찌해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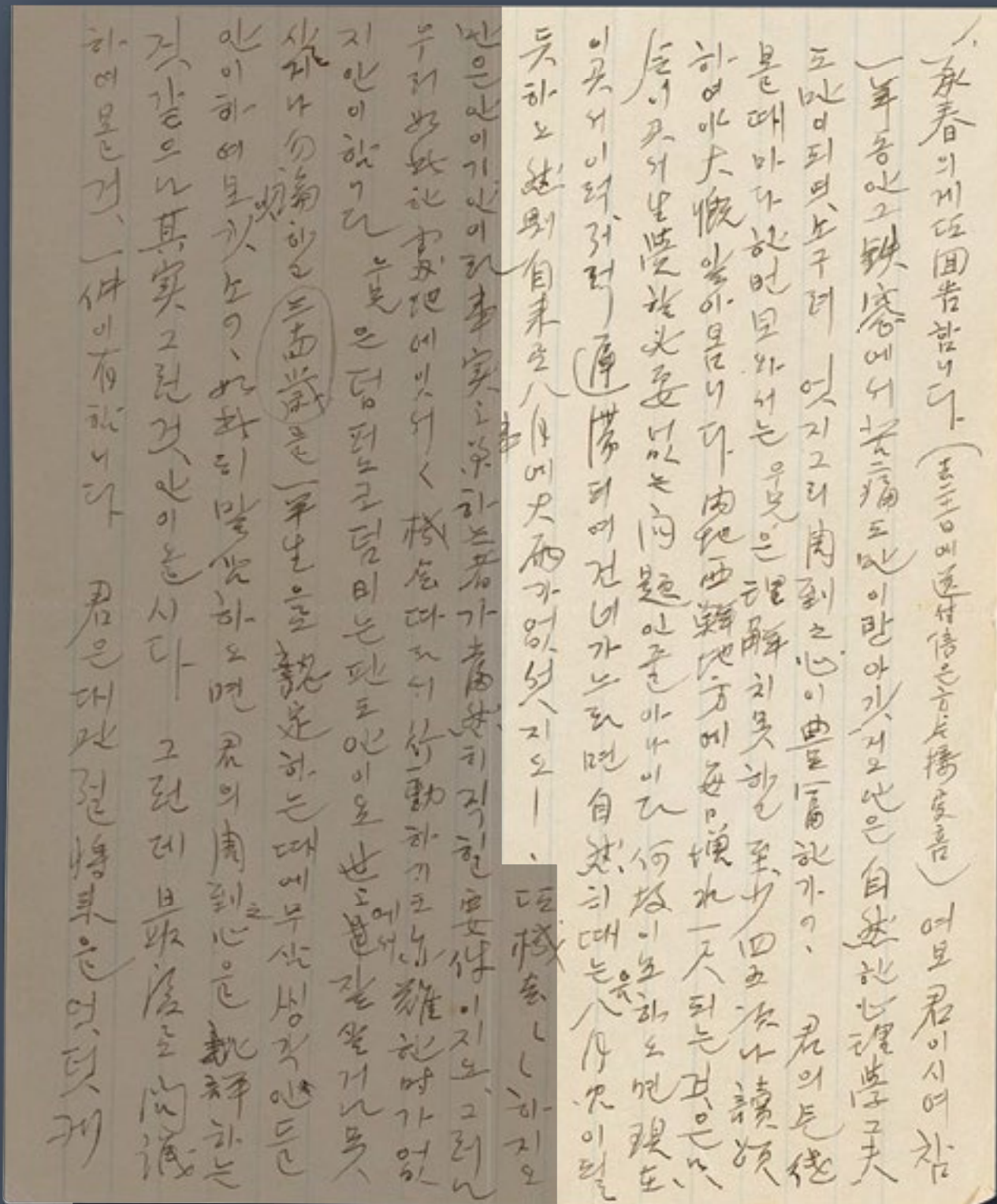


그때 이르러 자신이 소유한 배 세 척이 모두 다 출범하였다면
자기 친구의 배라도 어렵지 않게 구해주시기로 서로 간에 약속하였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미리 말하였소이다.]
저도 이곳에서 배를 빌릴 예정은 없었는데 이같이 희망이 생기니
매우 기쁘고 기쁩니다. 근간 명현 군의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편지를 씁니다.

1925년 8월 14일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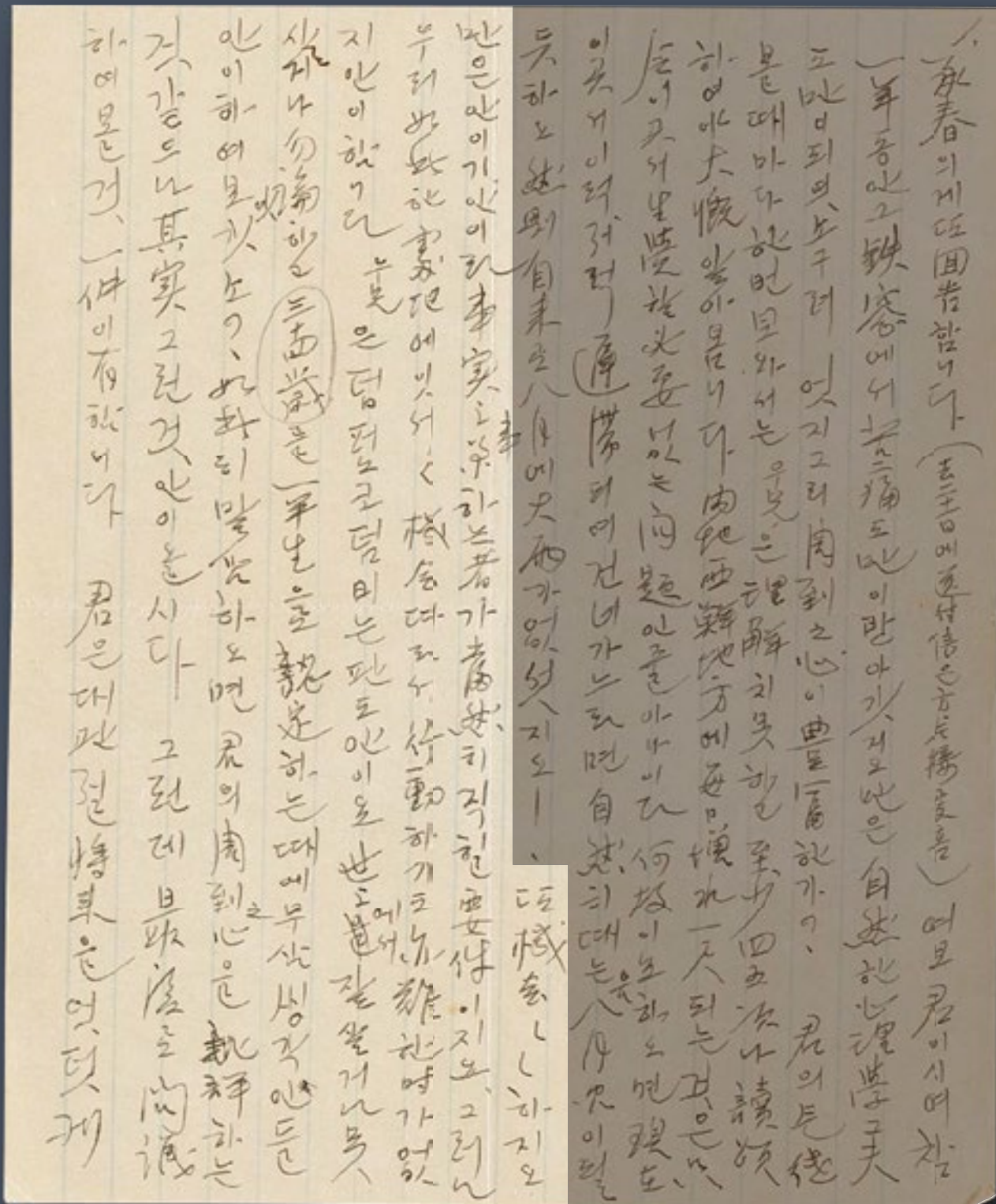
김영일* 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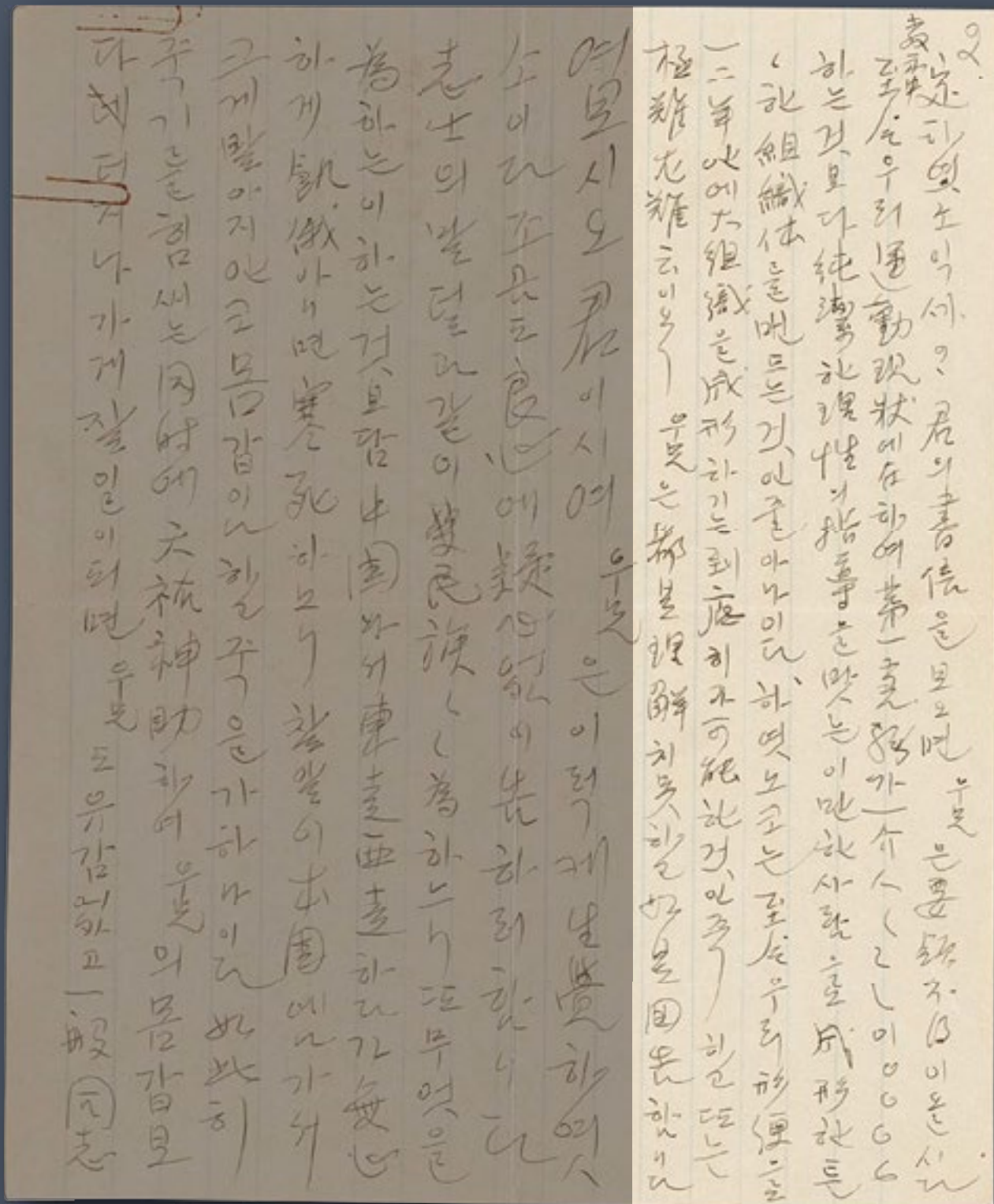
승춘에게 또 답신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보낸 편지는 방금 받았음] 이보시오, 이 군! 참으로 1년 동안 철창에서 고통도 많이 받았겠지만, 자연스럽게 심리학 공부도 많이 되었겠구려. 어찌 그리 빈틈없이 주도면밀하신가? 그대의 편지를 볼 때면 나는 한번 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최소 4, 5차례는 읽어야 그 대강을 알겠습니다. 한국 내 평안도 · 황해도에 (장마로) 매일 1척씩 물이 불어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줄 압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가 하면, 현재 이곳에서 이력저력 지체되어 건너가려면 자연히 때는 음력 8월쯤이 될 듯하기 때문이요. 그러니 예로부터 8월에 큰비가 없었지요!

2-2



또 기회 기회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일을 도모하는 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요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처지에 있어서 기회를 틈타 행동하기도
 또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덤비는 편도 아니요, 세상에서 잘살거나 못살거나를
 막론하고 서른 네 살을 일평생으로 마치길 작정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 해 보았겠소?
 이같이 말하면, 그대의 주도면밀함을 비평하는 것 같으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끝으로 문의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대는 대관절 장래를 어떻게

3-1



정하였습니까?

그대의 편지를 보아도 나는 요점을 잘 모르겠소이다.

말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 활동에 있어

가장 급선무는 각 개인이 ○○○○* 하는 것보다

순결한 이성의 지도를 받은 사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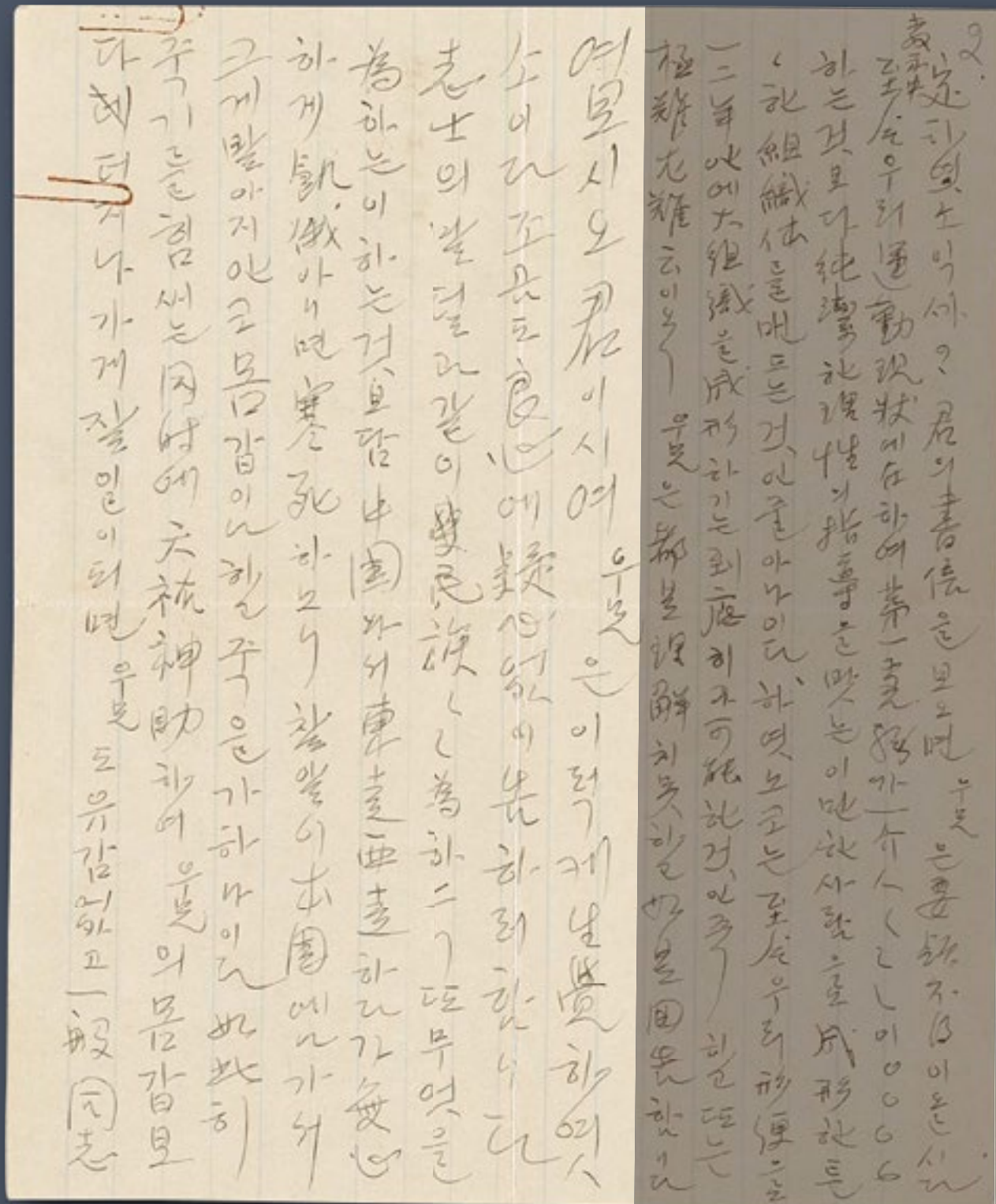
구성된 튼튼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 1, 2년 안에 큰 조직을 만들기란
도저히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극히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여 이같이 답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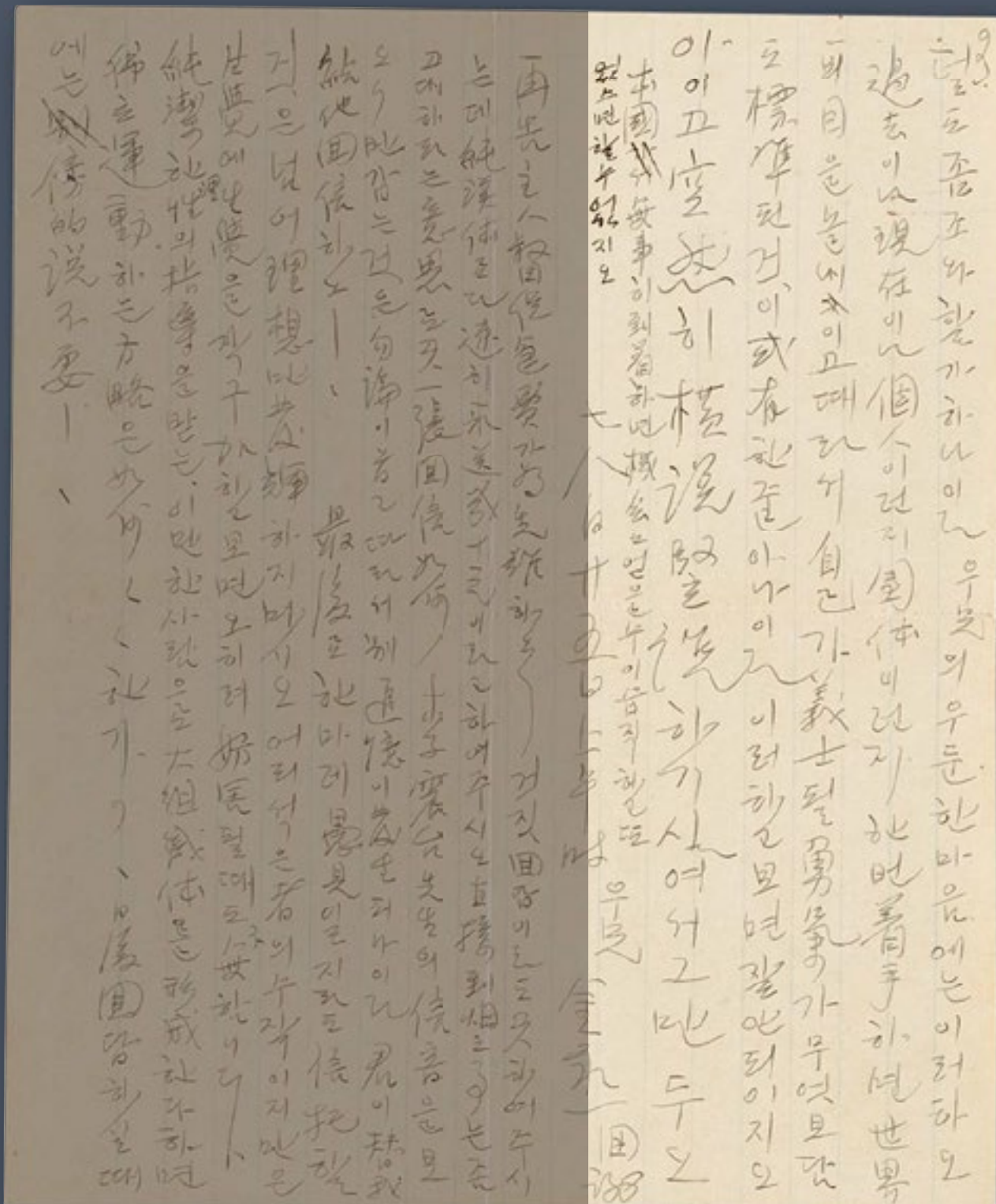
* 0000 : 독립운동, 혹은 의열투쟁을 뜻하는데 일부러 빈칸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임

3-2



이보시오, 이 군!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소이다.
 조금도 양심에 의심 없이 말하려 합니다.
 지사志士의 말들과 같이 민족, 민족을 위한다든지,
 또 무엇을 위한다든지 해서 중국에 와 동분서주하다가
 무심하게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일어 죽느니,
 차라리 본국에 가서 크게 바라지 않고
 몸값이나 하고 죽을까 합니다.
 이와 같이 죽기를 힘쓰는 와중에 하늘이 도와
 나의 몸값보다 더 지나치게 일이 잘되면
 나도 유감없고 동지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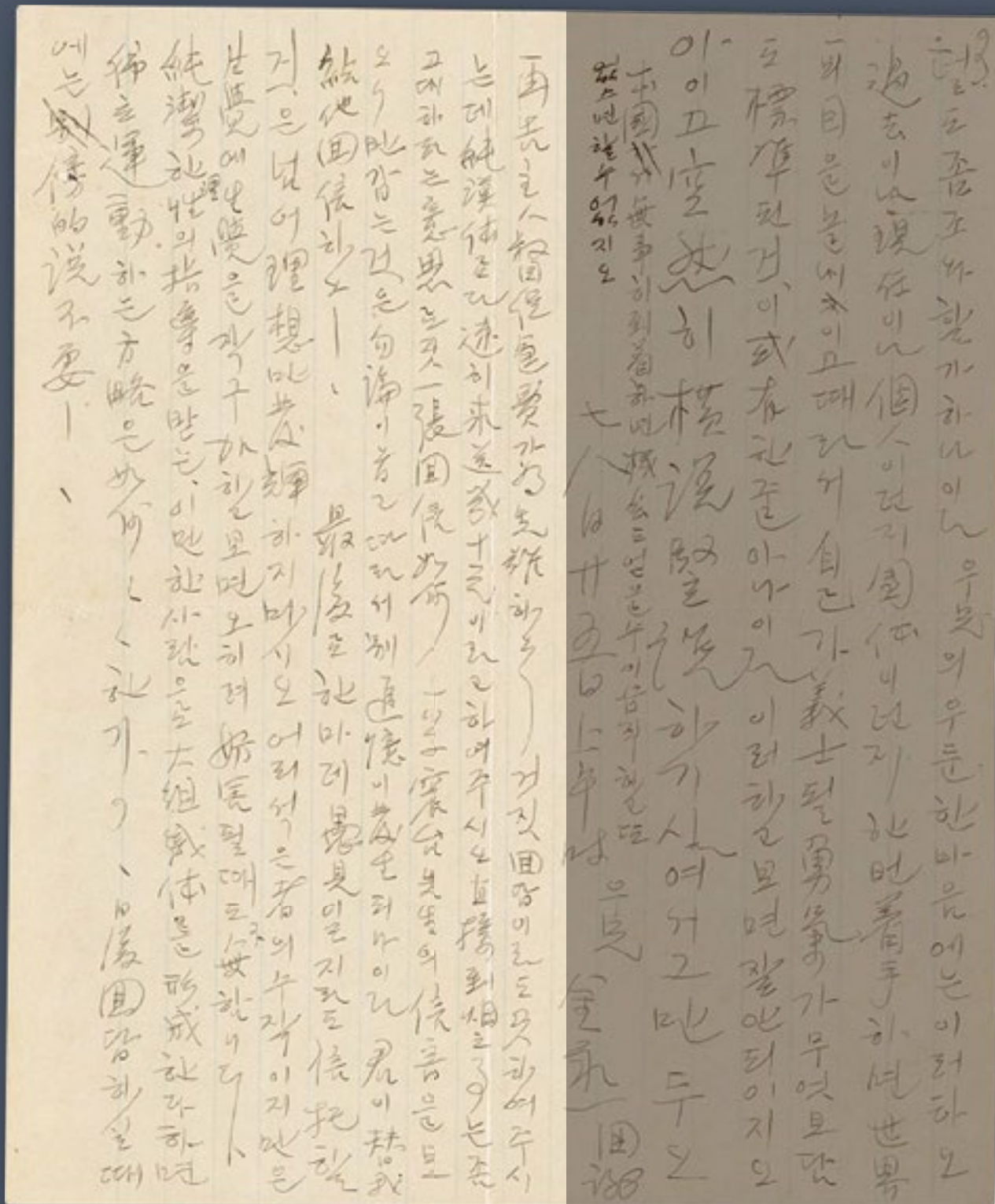
4-1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우둔한 마음에는 이렇다오.
 과거나 현재나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한 번 (의거에) 착수하면
 세계 이목을 놀라게 하는 때라서 (누구나) 자기가 의사^{義士}될
 용기가 무엇보다도 (각자의) 기준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아이고, 공연히 횡설수설하기 싫어서 그만두오.
 본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기회도 얻을 수 있음직하고
 또 없으면 할 수 없지요.

1925년 8월 25일 오전 시
 김영일* 회신

4-2



두 번째 이어 쓰오. 주인이 식비를 독촉하는 것이 난처하니 곧바로 거짓으로라도 ‘속히 몇십원을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순한문으로 써서 답장해 주시오. 직접 엔타이^{煙台}로 오겠다고 한 말은 나에게 기다리라는 뜻인지 곧 편지 한 장을 보내 주는 게 어떻겠소?

이진태* 선생의 서신을 보니 반가운 것은 물론이고, 잇따라 별별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 군이 나를 대신하여 안부를 전해주시오.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비록 어리석은 견해일지라도 당부할 말은, 너무 이상만 쫓지 마시오. 어리석은 자의 수작이지만 생각에 생각을 자꾸 더하다 보면 오히려 방해될 때도 없지 않소. 순결한 이성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로 큰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면 (앞으로) 독립운동의 방법은 어떻게 되겠소?

후일 회답할 때는 핵심 내용만 얘기해 주길 바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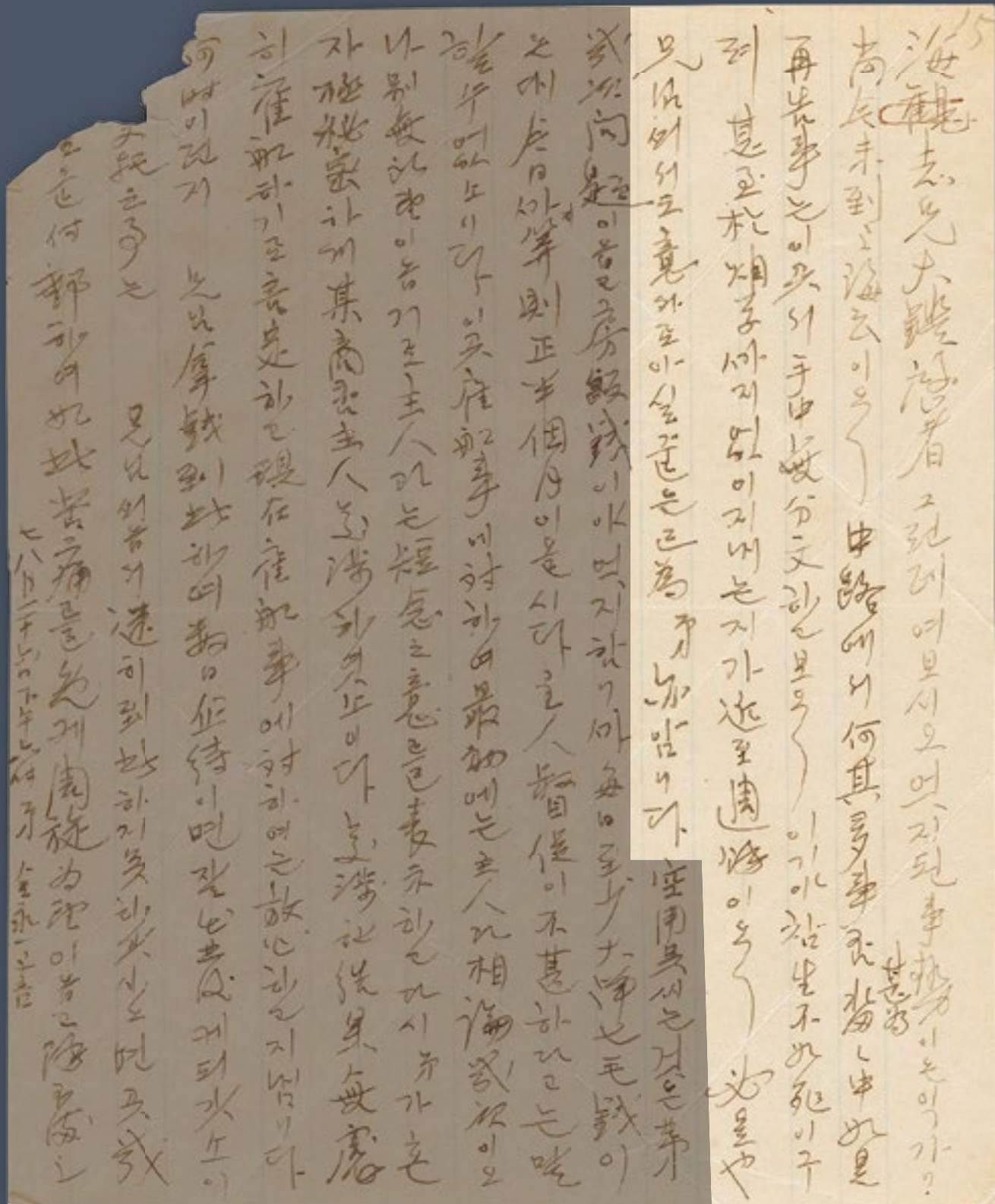
* 이진태 : 이영선(李永善, 1889~1978). 대한광복단. 무장독립운동 통합을 위해 노력

황해관에게 의거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 (1925. 8. 26.)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수 6284-13

1-1



그런데 여보시오. 어찌 된 일이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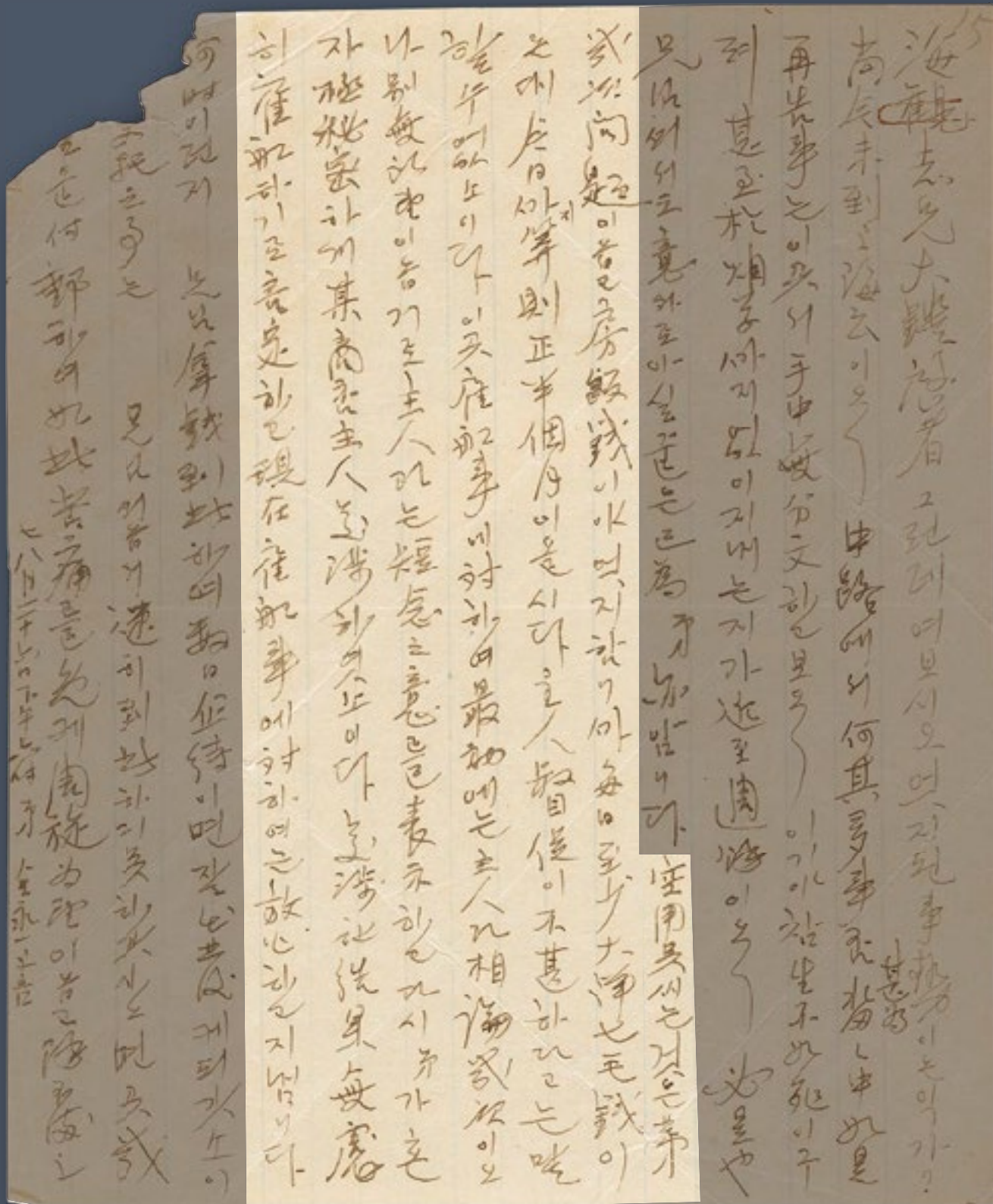
지금까지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지 않았다니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히 답답한 와중에 이같이 다시 알리는 일은, 이곳에서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보니 이거야 참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구려.

심지어 담배까지 없이 지낸 지가 1주 가까이 되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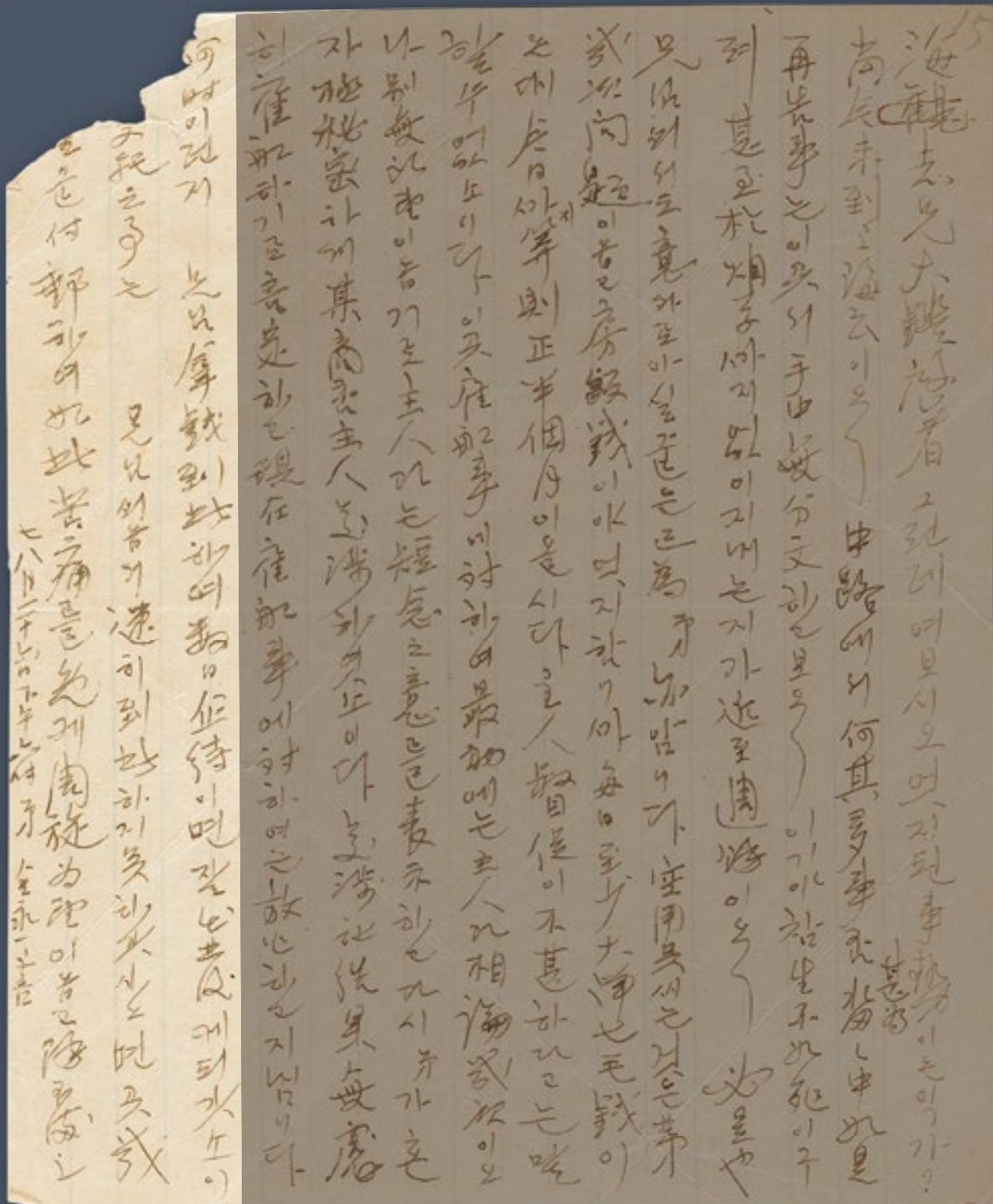
필시 형님께서도 의외로 생각하실 줄은 이미 아우 또한 알고 있습니다.

1



헛되이 쓰는 돈을 못 쓰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방값과 밥값이야 어찌합니까? 매일 드는 돈이 최소 중국돈 70전인데
 오늘까지 계산해 보면 보름이올시다.
 주인 독촉이 심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소이다.
 이곳에서 배를 빌리는 일에 대해 처음에는 주인과 몇 차례 서로 의논하였으나,
 별달리 기대할 바가 없기에 주인에게 단념할 뜻을 내비치고
 다시 저 혼자 극비리에 모 상점 주인을 교섭하였소이다.
 그 결과 문제가 없이 배를 빌리기로 말로 약속하고
 현재 배를 빌리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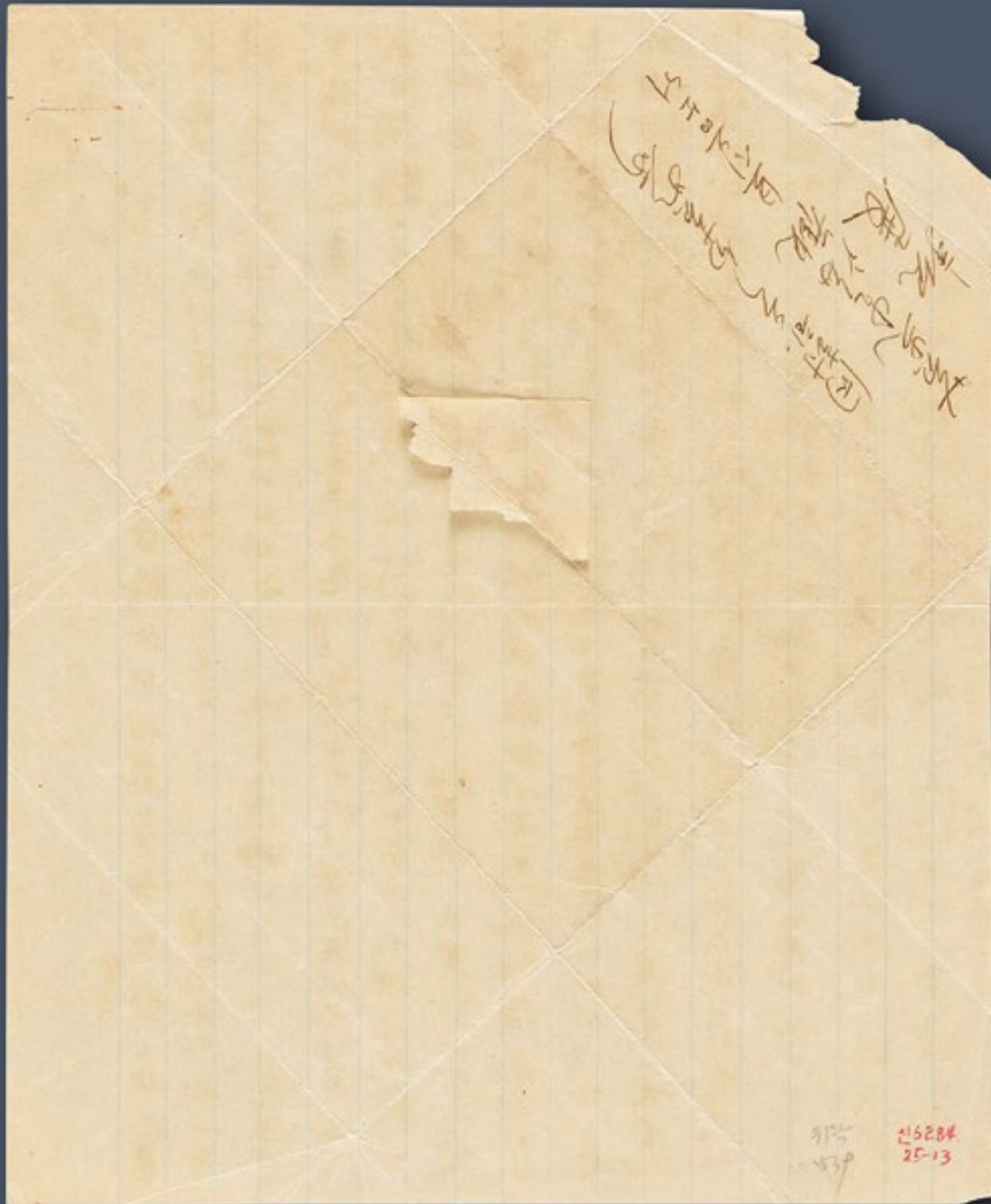
1



언제든지 형님이 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며칠 기다리면
무난히 출발하게 될 것이외다.
(다시) 부탁할 일은 형님께옵서 속히 이곳에 오지 못하겠으면
곧 돈 몇 푼이라도 우편으로 보내
이와 같은 고통을 면하게 주선해 주기 바라옵고,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립니다.

1925년 8월 26일
오후 6시 아우 김영일* 올림

* 김영일 : 나석주의 가명



동봉하오니 책망하지 말아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황해관* 선생 보시옵소서.

* 해관 : 황익수의 호가 해관이라 황해관으로도 부름